

史學篇

1. 항우(項羽), 번쾌(樊噲)를 만나다

항우는 유방(劉邦)이 자신보다 진(秦) 나라 수도로 먼저 쳐들어간 것을 처벌하기 위해 홍문(鴻門)에서 잔치를 벌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유방의 부하인 장량(張良)과 번쾌(樊噲) 지략으로 무사히 탈출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1 樊噲¹⁾曰 今日之事何如오 良²⁾曰 甚急라 今者에 項莊³⁾拔劍舞하니 其意常在沛公⁴⁾也니라 噲曰 此迫矣니 臣請入하야 與之同命라하고 噲即帶劍擁盾入軍門하니 交戟之衛士⁵⁾欲止不內러니 樊噲側其盾以撞에 衛士仆地라 噲遂入하야 披帷西嚮立하야 瞋目視項王호대 頭髮上指하고 目眦盡張어늘 項王가 按劍而跽曰 客何爲者오 張良曰 沛公之參乘⁶⁾樊噲者也라하니 項王曰 壯士로다 賜之卮酒라하야늘 則與斗卮酒하니 噲拜謝하고 起立而飲之하대 項王曰 賜之彘肩하라하니 則與一生彘肩하니라 《史記》 〈項羽⁷⁾本紀〉

2 樊 울타리 번 噲 목구멍 꽤 擁 깎을 盾 방패 순 眦 눈꼬리가 찢어질 자 跽 꿇어앉을 기 卮 술잔 치 彘 돼지 채

번쾌(樊噲)가 말하기를, “오늘 일이 어떠합니까?”라고 하니, 장량(張良)이 말하기를, “매우 위급하다. 지금 항장(項莊)이 칼을 뽑아 춤을 추는데 그 의도가 언제나 패공(沛公)에게 있다.”라고 하였다. 번쾌가 말하기를, “이는 급박한 상황이니 청컨대 신이 들어가 주군과 생사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번쾌가 곧바로 칼을 차고 방패를 끼고 군문(軍門)으로 들어가니 창을 교차한 채 <들고 파수를 보던> 호위병들이 저지하며 들이지 않자 번쾌는 그들의 방패를 옆으로 <들고 그들을> 치니 호위병들을 땅에 쓰러뜨렸다. 번쾌가 드디어 들어가 장막을 들추고 서쪽을 향해 서서 눈을 부릅뜨고 항우를 노려보았는데, 머리카락은 위로 곤두서고 눈꼬리는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었다. 항우가 칼을 만지며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그대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라고 하였다. 장량이 말하기를, “유방의 참승(參乘) 번쾌라는 자입니다.”라고 하였다. 항우가 말하기를, “장사로다! 술을 한 잔 내려주어라!”라고 하자, 한 말의 술을 주니 번쾌는 감사의 절을 하고 일어서서 들이마셨다. 항우가 말하기를, “그에게 돼지 어깻죽지를 주어라.”라고 하니 곧바로 익지도 않은 돼지 어깻죽지 하나가 주어졌다.

2. 유방(劉邦), 천하의 마음을 얻다.

- 1) 樊噲 : ?~B.C. 189. 한 나라 고조 때의 공신. 유방(劉邦)이 병사를 일으킨 뒤 무장으로 용맹을 떨쳐 공을 세웠다. 유방이 즉위한 뒤 좌승상·상국이 되고 그 뒤 여러 반란을 평정했다.
- 2) 良 : 張良(?~B.C. 186). 한 나라 고조 유방의 공신. 진승·오광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유방의 진영에 속하였으며, 후일 항우와 유방이 만난 '홍문(鴻門)의 만남'에서는 유방의 위기를 구하였다. 선견지명이 있는 책사로서 한 나라의 서울을 진 나라의 고지인 관중으로 정하고자 한 유경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 3) 項莊 : ?~?. 초 나라 사람으로 진(秦) 나라 말기의 무장이다. 항우(項羽)의 사촌동생으로 홍문연(鴻門宴)에서 범증(范增)의 지시로 유방(劉邦)을 죽이려고 했다.
- 4) 沛公 : 패(沛) 땅에서 군사를 일으킨 유방(劉邦)을 이름.
- 5) 衛士 : 대궐(大闕)이나 관아(官衙), 군영(軍營)을 지키던 장교(將校).
- 6) 參乘 : =驂乘·陪乘. 높은 사람의 수레를 수행하는 사람.
- 7) 項羽 : B.C. 232~202. 우(羽)는 자이고, 이름은 적(籍)이다. 초 나라의 명장 항연(項燕)의 후손으로, 서초패왕(西楚霸王)에 즉위함으로써 왕이 되었다. 뒷날 유방(劉邦)의 도전으로 싸우다 패하자 자살하였다.

유방은 가혹한 법에 고통을 받던 진(秦) 나라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법적용을 약속하며, 그들의 민심을 얻는다. 이를 통해 진 나라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음으로써 새 나라의 지지기반을 조성하였다.

1 十一月에 沛公⁸⁾이 悉召諸縣父老⁹⁾豪傑¹⁰⁾하여 謂曰 父老苦秦苛法¹¹⁾이 久矣라 誹謗者를 族¹⁰⁾하고 偶語者를 棄市¹¹⁾하니 吾當王關中이라 與父老約하노니 法三章耳라 殺人者는 死하고 傷人及盜는 抵罪하고 餘는 悉除去秦法하니 諸吏民은 皆案堵¹²⁾如故하라 凡吾所以來는 爲父老除害요 非有所侵暴니 無恐하라 且吾所以還軍¹³⁾霸上은 待諸侯至而定約束耳라하고 乃使人으로 與秦吏行縣鄉邑하며 告諭之하니 秦民이 大喜하야 爭持牛羊酒食하야 獻饗軍士어늘 沛公이 又讓不受曰 倉粟多하야 非乏하니 不欲費民이라한대 民又益喜하야 唯恐沛公不爲秦王이라라 《史記》〈高祖本紀〉

豪 호걸 호傑 뛰어들 걸 苛 사나울 가 誹 헐뜯을 비 謗 헐뜯을 방 霸 으뜸 패 獻 드릴 헌 饗 먹일 향 棄 버릴 기 堵 담장도 諭 깨우칠 유

11월에 패공(沛公)이 여러 현(縣)의 부로(父老)와 호걸(豪傑)들을 다 불러 이르기를, “부로들이 진(秦) 나라의 혹독한 법에 고생한 지가 오래되었다. 〈정부를〉 비방하는 자는 삼족(三族)을 멸하고 둘이 모여 말하는 자는 기시(棄市)하니, 내가 마땅히 관중(關中)에 왕이 되어 부로들과 약속하니 법은 단지 3장(章) 뿐이니,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하거나 도둑질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죄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는 진(秦) 나라의 법을 모두 제거하니, 여러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옛날과 같이 편안히 살라. 무릇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부로를 위하여 해로움을 제거하려고 한 것이지 침략하고 포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패상(霸上)으로 돌아와 주둔한 것은 제후들이 이르기를 기다려 약속을 정하려고 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사람을 시켜서 진 나라의 관리와 함께 현(縣)과 향(鄉)과 읍(邑)을 순행하며 이를 알리게 하였다. 진 나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여 다투어 소와 양과 술과 밥을 가지고 와서 바쳐 군사들에게 먹게 하였으나 패공은 또 사양하고 받지 않으며 말하기를, “창고에 곡식이 많아 부족하지 않으니, 백성의 〈재물을〉 허비하고자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또 더욱 기뻐하여 패공이 진왕(秦王)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3. 가난했던 젊은 공자(孔子)

젊은 시절 공자는 몹시 가난하여 온갖 고생을 겪으며 자신의 철학을 제후들에게 유세한다. 그러던 도중에 공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진채지액(陳蔡之厄)을 당하지만 끝내 자신의 모국인 노 나라에서 그를 인정하여 등용하였다.

8) 沛公 : 패(沛) 땅에서 일어난 유방(劉邦).

9) 父老 : 한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남자 어른.

10) 族 : 부계(父系), 모계(母系), 처계(妻系)를 통틀어 이르는 삼족(三族)이라고 한다.

11) 棄市 : 옛날 중국의 형벌의 하나로 죄인을 공개된 장소에서 죽여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리던 일.

12) 案堵 : 집안에 있듯이 편안함.

13) 軍 : 주둔함.

3 孔子貧且賤¹⁴⁾어려서니 及長에 嘗爲季氏¹⁴⁾史¹⁵⁾한데 料量平¹⁵⁾하다 爲司職吏¹⁵⁾而畜(혹)蕃息¹⁶⁾어늘 由是爲司空¹⁷⁾하고 已而去魯하면 斥乎齊하고 逐乎宋、衛하고 困於陳蔡之間¹⁸⁾하고 於是反魯하시다 孔子長九尺有六寸이니 人皆謂之長人而異之라 魯復(부)善待¹⁹⁾하야 由是反魯하시다 《史記》〈孔子世家〉

4 賤 천할 천 畜 기를 혹 蕃 늘어날 번 斥 물리칠 척 蔡 거부 채 復 다시 부

공자(孔子)는 가난하고 천했다. 장성해서는 일찍이 계손씨(季孫氏)의 〈창고〉 관리자가 되었는데, 저울질은 공평하게 하였다. 〈목장의〉 사직리(司職吏)가 되었을 때는 가축들이 번식하였다. 그래서 사공(司空)이 되었다. 이윽고 노 나라를 떠나 제(齊) 나라에서 배척받고, 송(宋) 나라와 위(衛) 나라에서는 쫓겨나고, 진(陳) 나라와 채(蔡) 나라 사이에서는 곤란을 당하고 이에 노 나라로 돌아왔다. 공자는 키가 9척 6촌으로 사람들은 모두 그를 ‘키다리[長人]’라고 부르며 기이하게 여겼다. 노 나라가 다시 그를 잘 대접하여 그로 말미암아 노 나라로 돌아왔다.

4. 기자(箕子), 조선에 오다.

기자가 조선에 와서 팔조지교(八條之敎)를 만들어 반포하자, 백성들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5 濊은 北與高句驪、沃沮, 南與辰韓接하고 東窮大海하며 西至樂浪이라 濊及沃沮句驪는 本皆朝鮮之地也라 昔武王封箕子於朝鮮한데 箕子敎以禮義田蠶하고 又制八條之敎¹⁹⁾라 其人終不相盜하야 無門戶之閉하고 婦人貞信하야 飲食以籩豆²⁰⁾라 《後漢書》〈東夷傳〉

6 濊 깊을 예 驪 가라말 러 沃 물덜 옥 沮 막을 저 蠶 누에 잠 籩 제기 이름 번

예(濊)는 북쪽으로 고구려(高句驪), 옥저(沃沮), 남쪽으로 진한(辰韓)과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 큰 바다에 막히고 서쪽으로 낙랑(樂浪)에 이른다. 예와 옥저, 구려는 모두 본래 조선의 땅이다. 옛날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는데 기자는 예의와 밭농사와 누에치기를 가르쳤고 또 팔조지교(八條之敎)를 만들자, 사람들이 마침내 서로 도둑질하지 않아 문을 닫는 〈사람이〉 없었고, 부인들은 정숙하고 변두(籩豆)에 음식을 먹었다.

5. 패배자 손빈(孫臏), 망연(龐涓)을 이기다

14) 季孫氏 : 중국 춘추 시대 후기에 노(魯) 나라의 정권을 장악한 귀족 가문 가운데 하나.

15) 司職吏 : 회계를 담당하는 벼슬.

16) 蕃息 : =繁殖. 번식함.

17) 司空 : 주 나라 때 육경(六卿)의 하나로, 토지를 담당하였다.

18) 困於陳蔡之間 : 공자(孔子)가 진(陳) 나라와 채(蔡) 나라의 국경지대에서 양식이 끊겨 며칠 동안 굶주리는 액을 당했던 일을 이른다.

19) 八條之敎 :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들어와 시행했다는 팔조지교(八條之敎)를 말한다. 지금 전하는 것은,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세 조항뿐이다.

20) 籩豆 : 籩은 대나무, 豆는 나무로 만든 식기나 제기(祭器).

귀곡선생(鬼谷先生)의 문하생인 손빈과 방연은 세상에 나와 철저히 대척점에 서면서, 방연은 자신의 동문인 손빈의 슬개골을 제거함으로서 자신의 라이벌을 제거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모를 당한 손빈은 끝내 감조지술(滅竈之術)로 방연을 마릉(馬陵)으로 유인하여 물리친다.

7 齊因起兵하여 使田忌²¹⁾、田嬰²²⁾、田盼²³⁾將之하고 孫子²⁴⁾爲師하여 以救韓으로 直走魏都하다 龐涓²⁵⁾聞之하고 去韓而歸하다 魏人大發兵하여 以太子申爲將하여 以御齊師하다 孫子謂田忌曰 彼三晉²⁶⁾之兵素悍勇而輕齊하며 齊號爲怯이라 善戰者는 因其勢而利導之라 兵法엔 百里而趣利者 是蹶上將하고 五十里而趣利者는 軍半至이라하다 乃使齊軍로 入魏地爲十萬竈하고 明日爲五萬竈하며 又明日爲二萬竈라 龐涓이 行三日에 大喜曰 我이 固知齊軍怯인데 入吾地三日에 士卒亡者가 過半矣라하고 乃棄其步軍하고 與其輕銳로 倍日并行逐之하다 孫子가 度其行하니 暮當至馬陵²⁷⁾이라 馬陵은 道狹而旁多阻隘하니 可伏兵이라 하고 乃斫大樹하여 白而書之曰 龐涓이 死此樹下하리라 하고 於是에 令齊師善射者로 萬弩夾道而伏하고 期日暮하여 見火舉而俱發이라니 龐涓이 果夜到斫木下하여 見白書하고 以火燭之어늘 讀未畢에 萬弩이 俱發하니 魏師이 大亂相失이라 龐涓이 自知智窮兵敗하고 乃自剄하니 齊因乘勝하여 大破魏師하다. 《資治通鑑》〈周紀·顯王〉

8 嬰 어린이이 영 盼 눈예를 반 龐 클방 涓 시내 연 悍 사나울한 怯 겁먹을 겁 蹶 넘어질 竈 부엌 조 銳 날랜 예 阻 막힐 조 隘 좁을 애 斫 벨 작 弩 쇠뇌 노 乘 탈승 勝 이길 승 剄 목벨 정

제 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전기(田忌)·전영(田嬰)·전반(田盼)으로 하여금 〈병사를〉 거느리고 손자(孫子)를 군사(軍師)로 삼아 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곧바로 위 나라의 도성으로 달려갔다. 방연(龐涓)이 이 소식을 듣고, 한에서 철수하여 〈개봉(開封)〉으로 돌아왔다. 위 나라에서는 〈군대를〉 크게 발동하였는데, 태자 신(申)을 장수로 삼고서 제 나라의 군사를 막도록 하였다. 손자가 전기에게 말하기를, “저들 삼진(三晉)의 병사들은 평소 사납고 용감하여 우리 제 나라를 가볍게 보고 있으며 제 나라를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 형세를 이용하여 그것을 이롭게 이끅니다. 《병법(孫子)》에, ‘100리의 속도로 이익을 쫓는 자는 상장군을 잃을 것이고, 50리의 속도로 이익을 쫓는 자는 군사의 반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 나라의 군사들로 하여금 위 나라의 땅으로 들어가서 10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고, 다음날에는 5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며, 또 그 다음날에는 2만 개의 아궁이를 만들도록 하였다. 방연이 행군한지 사흘 만에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제 나라 군대들이 겁쟁이인 줄 알았는데 우리 땅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사졸(士卒) 가운데 달아난 자가 반을 넘었다.”라고 하고, 이에 그 보병을 버리고 가볍고 날랜 군사들과 날을 배로 하여 아울러 행군하여 〈제 나라 군사를〉 추격하였다. 손자가 그들의 행군을 헤아려보니 저녁이면 마릉

21) 田忌 : ?~?. 중국 전국시대 제(齊) 나라의 장군. 위왕(威王)에게 손빈(孫臏)을 추천하는 한편, 손빈과 함께 전투에 참가하여 계릉(桂陵)·마릉(馬陵)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22) 田嬰 : ?~?. 전국시대 제(齊) 나라 사람. 제 나라의 공족(公族)으로, 위왕(威王)의 소자(少子)다. 맹상군(孟嘗君)의 아버지다. 처음 장수가 되어 마릉(馬陵) 전투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23) 田盼 : ?~?. 전국시대 제(齊) 나라 장수.

24) 孫子 : B.C. 382~316. 중국 전국시대의 전략가. 병가(兵家)의 대표적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손무(孫武)의 5대손으로 손빈(孫臏)으로 불린다.

25) 龐涓 : ?~B.C. 342. 중국 전국시대 위 나라의 장수이다. 제 나라(齊)의 군사인 손빈(孫臏)과 맞서던 인물이다.

26) 三晉 : 춘추 시대 강국의 하나였던 진(晉) 나라가 분리되어 세워진 한(韓)·위(魏)·조(趙)의 세 나라.

27) 馬陵 :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요해지로서 장성(長城)이 있으며, 험하기로 유명하다.

(馬陵)에 도착할 것이라 생각했다. 마름은 길이 좁고 옆에 장애물이 많아 험하니 복병을 숨길 만하다고 하고는 큰 나무를 찍어서 흰 바탕에 쓰기를, “방언이 이 나무 아래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이에 제 나라 군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자들로 하여금 만 개의 쇠뇌를 가지고 길을 끼고 매복하게 하였다. 해가 저물어 햇불을 든 것을 보거든 모두 함께 쏘라고 <약속> 정하였더니 방언이 과연 밤에 찍어 놓은 나무 아래에 도착하여 흰 바탕에 쓴 글씨를 보고 햇불로 그것을 비추거늘 읽기를 마치기도 전에 만 개의 쇠뇌가 함께 발사되자 위 나라 군사들이 크게 어지러워 서로 잃었다. 방언이 지혜가 다하여 싸움에 패했음을 알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니 제 나라 <군대는> 승기를 타서 위 나라 군사를 크게 격파했다.

6. 개도둑, 닭울음 흉내로 살아 돌아온 맹상군(孟嘗君)

맹상군(孟嘗君)의 식객이 3천명이었다. 그 중 개처럼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사람과 닭소리를 잘 흉내 내는 사람의 재주로 진 나라에서 달아날 수 있었다.

9 秦王이 聞孟嘗君²⁸⁾之賢하고 使涇陽君²⁹⁾으로 爲質於齊하고 以請^하니 孟嘗君이 來入秦이라 秦王이 以爲丞相^{한대} 或謂秦王曰 孟嘗君이 相秦이면 必先齊而後秦하리니 秦其危哉^라이다 秦王이 乃以樓緩³⁰⁾爲相하고 囚孟嘗君^하야 欲殺之^{하다} 孟嘗君이 使人^{으로} 求解於秦王幸姬³¹⁾^{한대} 姬曰 願得君狐白裘³²⁾^하노라 孟嘗君이 有狐白裘^라니 已獻之秦王^하야 無以應姬求^라 客에 有善爲狗盜者^하야 入秦藏中^하야 盜狐白裘^하야 以獻姬^{한대} 姬乃爲之言於王而遣之^라니 王이 後悔^하야 使追之^{하다} 孟嘗君이 至關^하니 關法에 鷄鳴^{이라}야 而出客^{이라} 時尙早^{하고} 追者將至^라니 客에 有善爲鷄鳴者^하야 野鷄聞之^{하고} 皆鳴^{이어}늘 孟嘗君이 乃得脫歸^{하다} 《通鑑節要》 〈周紀·威烈王〉

2 質 불모 질 樓 누각 누 緩 느릴 완 姬 계집 희 狐 여우 호 裘 깃옷 구 狗 개 구 盜 훔칠 도 關 빗장 관 鷄 닭 계 脫 벗을 탈 歸 돌아갈 귀

진왕(秦王)은 맹상군(孟嘗君)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경양군(涇陽君)으로 하여금 제(齊) 나라에 인질이 되게 하고 <맹상군>을 청하니, 맹상군이 진(秦) 나라로 들어갔다. 진왕이 맹상군을 승상(丞相)으로 삼으려 하자, 어떤 사람이 진왕에게 이르기를, “맹상군이 진 나라의 정승이 되면 반드시 제 나라를 우선시하고 진 나라를 뒤로 할 것이니, 진 나라는 아마도 위태로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진왕이 마침내 누완(樓緩)을 정승으로 삼고 맹상군을 가두어 죽이려 하자, 맹상군이 사람을 시켜 진왕의 행희(幸姬)에게 풀어줄 것을 요구하니, “그대의 호백구(狐白裘)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맹상군이 호백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벌써 진왕에게 바쳐 행희의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다. <따라온> 문객(門客) 중에 개처럼 도둑질을 잘하는 자가 있어서 진 나라의 창고 안에 들어가 호백구를 훔쳐 행희에게 바치니, 행희가 마침내 그를 위하여 진왕에게 말하여 보내주었는데, 왕이 뒤늦게 후회하여 그

28) 孟嘗君 : ?~B.C. 279?,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정치인으로 ‘전국사공자(戰國四公子)’ 가운데 하나이다. 제(齊) 나라의 왕족으로 진(秦)·제(齊)·위(魏)의 재상을 역임하였으며,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 후하게 대접하여 이름이 높았다.

29) 涇陽君 : ?~?. 이름은 리(攄)이고 진왕(秦王)의 아우다.

30) 樓緩 : ?~?. 조(趙) 나라 무령왕(武靈王) 때의 사람 일찍이 조왕(趙王)의 명에 따라 진(秦) 나라로 들어가 재상(宰相)이 되었다.

31) 幸姬 : 남다른 총애를 받는 여자.

32) 狐白裘 : 여우 거드랑이의 흰 털이 있는 부분의 가죽으로 만든 깃옷.

를 뒤쫓게 하였다. 맹상군이 관문에 이르니 관문의 법에 닭이 울어야 나그네를 내보냈다. 시각은 아직 이르고 쫓아오는 자는 장차 이르게 되었는데, 문객 중에 닭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자가 있어서 <닭울음을 흉내 내자> 등의 닭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두 울어 맹상군이 마침내 탈출하여 돌아올 수 있었다.

7. 삼황오제(三皇五帝)를 꿈꾸었던 황제(皇帝)

진시황(秦始皇)은 자신을 삼황오제와 견줄 만 하다고 여겨 자신에 대한 호칭을 삼황오제에게 한 글자씩 따와 황제(皇帝)로 일컬었다.

10 王賁³³⁾이 攻遼東하여 虜燕王喜하다. 初에 齊事秦謹하고 與諸侯信이라. 齊亦東邊海上이라 秦이 日夜에 攻三晉³⁴⁾하니 燕楚五國이 各自救하니 以故로 齊王建이 立四十餘年에 不受兵이라 後에 齊相及賓客이 多受秦間金하여 勸王朝秦하고 不修攻戰之備하고 不助五國攻秦하니 秦이 以故로 得滅五國하다. 王賁이 自燕으로 南攻齊할새 猝入臨淄³⁵⁾하니 民莫敢格者이다. 秦이 使人으로 誘齊王하여 約封以五百里之地하니 齊王이 遂降(항)이라 秦이 遷之共하고 處之松柏之間하여 餓而死하다. 王이 初并天下하얀 自以爲德兼三皇³⁶⁾하고 功過五帝³⁷⁾라하여 乃更號曰 皇帝라 하고 命爲制라 하고 令爲詔라 하고 自今以來로 除諡法하고 朕이 爲始皇帝하노니 後世以計數하여 二世三世로 至于萬世하고 傳之無窮하라. 《通鑑節要》 〈後秦紀·始皇帝〉

11 格 맞서 싸울 격 虜 사로잡을 노 邊 가 변 賁 손님 빈 滅 멸할 멸 淄 검은빛 치 誘 꺾유 詔 조서 조 諡 시호 시

왕분(王賁)이 요동(遼東)을 공격하여 연(燕) 나라 왕(王) 희(喜)를 사로잡았다. 처음에 제 나라가 진 나라 섬기기를 공손히 하고 제후와 더불어 신의가 있었다. 제 나라 또한 동쪽으로 바닷가에 접해 있어 진 나라가 밤낮으로 삼진(三晉)을 공격하니 연(燕) 나라 와 초(楚) 나라 와 <삼진> 다섯 나라가 각자 구원하니 이런 까닭으로 제(齊) 나라 왕 건(建)이 나라를 세운지 40여년 동안 <전쟁의> 병화(兵火)를 당하지 않았다. 뒤에 제 나라의 재상과 빈객들이 진 나라의 이간하는 금을 많이 받고 <제 나라> 왕에게 권하여 진 나라를 섬기라 하고 공격하여 싸우는 준비를 마련하지 않고 다섯 나라를 도와 진 나라를 치지 않으니 진 나라가 이런 까닭으로 다섯 나라를 멸망시키게 되었다. 왕분이 연 나라로부터 남쪽으로 제 나라를 공격하여 갑자기 임치(臨淄)로 들이닥치니 <제 나라> 백성들이 감히 맞서 싸우는 자가 없었다. 진 나라가 사람을 시켜 제 나라 왕을 회유하여 오백 리의 땅으로 봉해 주겠다고 약속하니 제 나라 왕이 드디어 항복하였다. 진 나라가 그를 공(共)에다가 옮겨두고 소나무와 측백나무 사이에 두어 굶어 죽게 하였다. <진 나라> 왕이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하고는 스스로 덕은 삼황(三皇)을 겸하였고 공은 오제(五帝)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이에 호칭을 고쳐 황제(皇帝)라 하고 명(命)을 제(制)라 하고 영(令)을 조(詔)라 하고 지금으로부터 시호하는 법을 없애고 짐이 시황제(始皇帝)가 되었으니 후세에는 수를 헤아려서 2세와 3세로부터 만세까지 이르러 영원히 전하게 하라.

33) 王賁 : ?~?. 중국 전국시대 진(秦) 나라 장수로, 위(衛)·연(燕)·제(齊) 등을 점령해 진의 천하통일에 큰 공을 세웠다.

34) 三晉 : 위(魏)·한(韓)·조(趙).

35) 臨淄 : 춘추 시대 제(齊) 나라의 수도.

36) 三皇 : 수인씨(燧人氏)·복희씨(伏羲氏)·신농씨(神農氏)를 이룸.

37) 五帝 : 소호(少昊)·전욱(顓頊)·제곡(帝嚳)·요(堯)·순(舜)을 이룸.

8. 진(秦) 나라의 멸망과 유방(劉邦)의 관용

진 나라 2세 황제 호해(胡亥)의 형이었던 부소(扶蘇)의 아들로, 호해의 뒤를 이어 진왕(秦王) 자영(子嬰)이 유방에게 항복을 한다. 당시 그를 죽여야 한다는 진언에도 유방은 그를 살려준다. 그러나 후에 함양(咸陽)으로 들어온 항우(項羽)에게 죽임을 당한다.

12 冬十月에 沛公至霸上³⁸⁾하니 秦王子嬰이 素車、白馬로 系頸以組하고 封皇帝璽、符節하여 降(항)軹道³⁹⁾旁이어늘 諸將이 或言誅秦王한테 沛公이 曰始懷王遣我은 固以能寬容이라 且人已降이어늘 殺之不祥이라하고 乃以屬吏하다 賈誼論曰 秦以區區之地⁴⁰⁾로 致萬乘之權⁴¹⁾하야 招八州⁴²⁾而朝同列이 百有餘年이라 然後以六合⁴³⁾爲家하고 殺、函爲宮한테 一夫作難而七廟墮하고 身死人手하야 爲天下笑者는 何也오 仁誼不施而攻守之勢異也⁴⁴⁾알새니라 《通鑑節要》 〈漢紀·太祖高皇帝〉

13 霸 으뜸 패頸 목경璽 도장새符 부절부節 부절절降 항복할 항軹 굴대 끝 지屬 붙일 속賈 값가乘 탈승招 부를 초殺 섞일 효函 상자함廟 사당 묘墮 떨어질 타勢 형세 세

겨울 10월에 〈유방(劉邦)〉 패공(沛公)이 패상(霸上)에 이르니 진왕 자영(子嬰)이 소박한 수레와 백마를 타고 끈으로 목을 매고 황제의 옥새와 부절을 봉하여 지도(軹道) 곁에서 항복하거늘, 여러 장수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진왕을 죽이라 하자 패공이 말하기를, “처음에 〈초 나라〉 회왕(懷王)이 나를 보낸 것은 진실로 능히 너그럽게 포용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이 이미 항복하였는데 그를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하고 이에 벼슬아치에게 붙여 두었다. 의가 논하기를 “진(秦) 나라가 조그마한 영토로 만승(萬乘)의 권력을 이루어 팔주(八州)를 불러들이고 동렬(同列)들에게 조회 받은 것이 백여 년이었다. 그런 뒤에 우주를 집으로 삼고 효산(峣山)과 함곡관(函谷關)을 궁궐로 삼았는데, 한 필부(匹夫)가 난을 일으키자 〈천자의〉 일곱 사당이 허물어지고 몸이 남의 손에 죽어서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된 것은 어째서인가? 인의(仁誼)를 베풀지 않았고 공격과 수비의 형세가 다르기 때문이었다.”라고 하였다.

9. 위징(魏徵)의 죽음

위징(魏徵)이 죽자 당태종은 신하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예우로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지만 위징 아내는 평소 근검했던 남편의 장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거절한다.

14 鄭文貞公魏徵⁴⁴⁾寢疾할새 上遣使者問訊하고 賜以藥餌⁴⁵⁾하야 相望⁴⁶⁾於道라 又遣中郎將李安

38) 霸上 : 진 나라의 수도인 함양(咸陽) 근처의 군사요충지.

39) 軹道 : 장안(長安)의 동쪽 30리 되는 곳에 있는 정(亭) 이름으로,

40) 區區之地 :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땅.

41) 萬乘之權 : 천자의 권위.

42) 招八州 : 진(秦) 나라는 구주(九州)의 하나인 옹주(雍州) 땅을 근거지로 삼아 다른 팔주(八州)를 불러들임.

43) 六合 : 천지와 사방. 곧 우주.

44) 魏徵 : 580~643. 당 나라 초기 위군(魏郡) 내황(內黃) 사람. 자는 현성(玄成)이고,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수 나라 말 혼란기에 무양군승(武陽郡丞) 원보장(元寶藏)의 전서기(典書記)가 되었다가 원보장을 따라 이밀(李密)에게 귀순하였다가, 다시 이밀을 따라 당고조(唐高祖)에게 귀순하여

儼⁴⁷⁾하야 宿其第⁴⁸⁾하며 動靜⁴⁹⁾以聞하고 上復(부)與太子으로 同至其第하야 指衡山公主하야 欲以妻其子叔玉하다 戊辰에 徵薨하니 命百官九品以上하야 皆赴喪하고 給羽葆⁴⁹⁾鼓吹하야 陪葬昭陵하되 其妻裴氏曰 徵平生儉素한데 今葬以一品羽儀⁵⁰⁾로 非亡者之志라하고 悉辭不受하며 以布車載柩而葬이라 上登苑西樓하야 望哭盡哀이라 上自製碑文하고 並爲書石하다 上思徵不已하며 謂侍臣曰 人以銅爲鏡이면 可以正衣冠하고 以古爲鏡이면 可以見興替하며 以人爲鏡이면 可以知得失이라 魏徵沒하니 朕亡一鏡矣라하다 《通鑑節要》 〈唐紀·太宗〉

15 魏 나라 이름 위 徵 부를 징 寢 잠잘 침 疾 병질 訊 물을 신 藥 약약 餌 먹을 이 儼 의젓할 의 第 집 제 衡 저울대 형 薨 죽을 흥 赴 나아갈 부 葆 풀 더부룩할 보 鼓 두드릴 고 吹 불취 陪 모실 배 葬 장사지낼 장 陵 무덤릉 裴 옷 치렁치렁할 배 儀 거동의 載 실을재 柩 널 구 苑 동산원 製 지을제 銅 구리동 鏡 거울경 替 쇄되할제 朕 나짐

정문정공(鄭文貞公) 위징(魏徵)이 병이 깊어지자, 왕이 사자를 보내 위문하고 약을 하사하는 〈행차가〉 서로 길에 이어졌다. 또 중랑장(中郎將) 이안엄(李安儼)을 보내어 위징의 집에 머물면서 안부를 살펴 보고하게 하고, 왕이 다시 태자와 함께 위징의 집[第]에 가서 형산공주(衡山公主)를 가리키며 위징의 아들 숙옥(叔玉)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였다. 무진일에 위징이 죽자, 백관들 가운데 구품(九品) 이상의 관료들에게 명하여 장례에 가게하고 새 깃으로 꾸민 일산을 갖춘 수레와 악단을 지급하여 소릉(昭陵)에 장사지내게 했다. 그의 아내 배씨가 말하기를, “남편은 평소 근검하였는데 지금의 장례는 일품 벼슬아치의 위의(威儀)이니 〈이는〉 죽은 자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모두 사양하고 받지 않고 삼베를 씌운 수레에 관을 싣고 장례를 지냈다. 왕이 원서루(苑西樓)에 올라 바라보고 곡을 하며 슬픔을 다하였다. 왕이 친히 비문을 짓고 아울러 이것을 비석에 썼다. 왕이 위징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지없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옛 역사로 거울을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으며,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징이 죽었으니 짐은 거울 하나를 잃었다.”라고 하였다.

10. 신하의 충고를 듣지 않은 잘못

조비(曹丕)는 가후(賈詡)의 근본을 세워 문덕(文德)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하며, 서둘러 적을 공격하여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듣지 않아 결국 싸움에서 패하게 된다.

16 初에 魏主丕⁵¹⁾問賈詡⁵²⁾曰 吾欲伐不從命하야 以一天下하노니 吳、蜀에 何先고 對曰 攻取者는

고조의 장자 이건성(李建城)의 측근이 되었다.

45) 藥餌 : 약이 되는 음식.

46) 相望 :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라보이는 만큼 떨어져 있음을 말한다.

47) 李安儼 : 590~643. 당 나라 돈구(頓丘) 사람.

48) 動靜 : 안부

49) 羽葆 : 새의 깃으로 장식한 의장용(儀仗用) 수레의 일산을 이른다.

50) 羽儀 : 우보(羽葆)의 화려한 장식을 갖춘 의식을 이른다.

51) 丕 : 조비(曹丕 : 187~226). 자는 자환(子桓)이다. 무제와 무선황후의 아들로, 무제가 다진 기반을 이어받고 후한 헌제의 선양을 받아 조위(曹魏)를 건국하였다.

52) 賈詡 : 147~223. 삼국 시대 위(魏) 나라 무위(武威) 고창(姑臧) 사람. 조조(曹操)의 모사로, 자는 문화(文和)다. 후한 말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낭(郎)이 되었다.

先兵權⁵³⁾하고 建本者는 尙德化하나니 陛下應期受禪하사 撫臨率土⁵⁴⁾하시니 若綏之以文德하야 而俟其變이면 則平之不難矣라이다 吳、蜀이 雖蕞爾⁵⁵⁾小國이나 依山阻水하며 劉備⁵⁶⁾는 有雄才하고 諸葛亮⁵⁷⁾은 善治國하고 孫權⁵⁸⁾은 識虛實하고 陸遜⁵⁹⁾은 見兵勢하야 據險守要하고 汎舟江湖하나 皆難卒謀也니이다 用兵之道는 先勝後戰하고 量敵論將이라 故로 舉無遺策하나니 臣은 竊料群臣에 無備、權對하나 雖以天威臨之나 未見萬全之勢也니이다 丕不納이라니 軍竟無功하니라 《通鑑節要》 〈昭烈皇帝〉

17 賈 값가 詡 자랑 할 후 權 권세 권 建 세울 건 陛 섬들 폐 禪 봉선 선 撫 어루만질 무 率 거느릴 솔 綏 편안할 수 俟 기다릴 사 變 변할 변 蕞 작을 최 雄 수컷 웅 識 알 식 虛 빌 허 實 열매 실 據 의거할 거 險 험할 험 汎 뜰 범 謀 꾀할 모 勝 이길 승 量 헤아릴 량 敵 적 적 舉 모두 거 遺 남을 유 策 대책 책 竊 훔칠 절 料 헤아릴 료 威 위엄 위 納 드릴 납

처음에 위주(魏主) 조비(曹丕)가 가후(賈詡)에게 문기를 “나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정벌하여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니, 오(吳)와 촉한(蜀漢) 중에 어느 쪽을 먼저 해야 하는가?”라고 하니, 가후가 대답하기를 “공격해서 취하는 자는 병권(兵權)을 우선으로 하고 근본을 세우는 자는 덕화(德化)를 숭상합니다. 폐하께서는 천시(天時)에 응하여 선양을 받아 온 천하에 군림하시니, 만약 문덕(文德)으로 <민심을> 편안하게 하면서 적의 변란이 있기를 기다린다면 <천하를> 평정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와 촉한은 비록 매우 작은 약소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산과 물의 험고함에 의지하여 지키고 있으며, 유비(劉備)는 뛰어난 재주가 있고 제갈량(諸葛亮)은 나라를 잘 다스리며 손권(孫權)은 허실을 알고 육손(陸遜)은 군대의 형세를 알아서 [見], <촉한은> 험한 곳을 점거하고 요해지를 지키며 <오 나라는> 강호에 배를 띄우고 있으니, 모두 갑자기<卒>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군대를 운용하는 방법은 먼저 승산을 따져 본 뒤에 싸우고, 적을 헤아리고 나서 장수를 논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빠뜨린 계책이 없는 것입니다. 신이 옆드려 헤아려보건대 여러 신하 중에 유비와 손권의 적수가 없으니, 비록 황제의 위엄으로 직접 정벌한다 하시더라도 만전의 형세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조비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군대는 끝내 전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11. 전략 없는 전쟁은 패배한다.

처음 부교(浮橋)를 만들어 이밀(李密)을 치도록 한 왕세충(王世充)의 전략은 좋았지만, 전군

53) 兵權 : 병마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권력이나 권리를 이른다.

54) 率土 : 솔토지빈(率土之濱)의 준말이다. 바다에 이르는 땅의 끝, 곧 온 천하를 이른다.

55) 蕞爾 : 작은 모양.

56) 劉備 : 161~223. 중국 촉한(蜀漢)의 초대 왕. 자는 현덕(玄德), 시호는 소열제(昭烈帝). 한 나라 경제(景帝)의 후예로 제갈공명(諸葛孔明)·관우·장비를 등용하여 위 나라 조조(曹操), 오 나라 손권(孫權)과 중국 천하를 3분하여 촉(蜀)에 자리잡고 촉한(蜀漢)을 건국했다.

57) 諸葛亮 : 181~234.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 명성이 높아 와룡선생(臥龍先生)이라 일컬어졌다. 유비(劉備)를 도와 오(吳) 나라의 손권(孫權)과 연합하여 남하하는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의 싸움에서 대파하고, 형주(荊州)와 익주(益州)를 점령하였다. 221년 한 나라의 멸망을 계기로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다.

58) 孫權 : 182~252. 중국 삼국 시대 오(吳)의 태제(太帝). 자는 중모(仲謀). 형 책(策)이 사망한 뒤 주유(周瑜)의 보좌로 강동(江東)을 차지하고 유비(劉備)와 함께 적벽에서 조조(曹操)를 대패시키고 위(魏)의 뒤에 오(吳)를 세워(222) 소위 삼국 시대에 들어갔다.

59) 陸遜 : 183~245. 삼국 시대 오(吳) 나라 오군(吳郡) 오현(吳縣) 사람. 본명은 의(儀)고, 자는 백언(伯言)이다. 시호는 소후(昭侯)다. 소패왕 손책(孫策)의 사위다. 처음에 손권(孫權)의 막부에서 일해 편장군(偏將軍)과 우부독(右部督)에 올랐다.

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 전투력으로는 결코 적을 이길 수 없다.

18 王世充⁶⁰⁾이 既得東都⁶¹⁾兵하고 進擊李密⁶²⁾於洛北하야 敗之하고 遂屯鞏北이라 辛酉에 世充이 命諸軍하야 各造浮橋⁶³⁾하야 渡洛擊密한데 橋先成者先進하니 前後不一이라 虎賁郎將王辯이 破密外柵⁶⁴⁾하니 密營中驚擾하야 將潰로되 世充不知하고 鳴角收衆하니 密因帥敢死士乘之하니 世充大敗하며 爭橋溺死者가 萬餘人이라 王辯死하고 世充僅自免하며 洛北諸軍皆潰라 世充不敢入東都하고 北趣河陽이라 是夜에 疾風寒雨하니 軍士涉水沾濕하야 道路凍死者가 又以萬數라 世充이 獨與數千人至河陽하야 自繫獄⁶⁵⁾請罪하니 越王侗遣使赦之하고 召還東都하야 賜金帛、美女以安其意이라 世充收合亡散하야 得萬餘人하야 屯含嘉城이나 不敢復(부)出이라 《通鑑節要》 〈漢紀·昭烈皇帝〉

19 充 찰충 擊 칠격 密 뻘뻘할 밀 鞏 묶을 공 浮 뜰 부 橋 다리교 賁 골분 辯 말잘 할 변 破 깨뜨릴 파 柵 울짱 책 驚 놀랄 경 擾 어지러울 요 潰 무너질 궤 鳴 을명 角 뿔 각 爭 다툼 쟁 溺 빠질 닻 僅 겨우근 敢 감히 감 疾 빠를 질 寒 추을 한 沾 더할 침 濕 젖을 습 凍 얼 동 侗 무지할 동 屯 진 칠 둔 嘉 아름다울 가

왕세충(王世充)이 이미 동도(東都)의 군사를 얻고 나서 나아가 낙수의 북쪽에서 이밀(李密)을 쳐서 그를 패배시키고 드디어 공(鞏) 땅의 북쪽에 주둔하였다. 신유일(辛酉日)에 왕세충이 여러 군대에 명령하여 각기 부교(浮橋)를 만들어 낙수를 건너서 이밀을 치게 하였는데 다리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먼저 나아가니 앞뒤 〈순서가〉 일치하지 않았다. 호분낭장(虎賁郎將) 왕변(王辯)이 이밀의 외책(外柵)을 깨뜨리자 이밀의 군영 안에서는 놀라 소란스러워졌고 곧 붕괴 되게 되었는데 왕세충은 알지 못하고 호각을 불어서 무리를 모으니, 이밀이 이 때문에 결사대의 병사를 인솔하고 〈이런 여세를〉 타니, 왕세충은 대패하였으며 다리에 올라 〈건너려고〉 다투다가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만 여 명이었다. 왕변은 죽고 왕세충은 겨우 스스로 면하였으며 낙수의 북쪽에 있던 여러 군대들도 모두 괴멸되었다. 왕세충은 감히 동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가서 하양(河陽)으로 향하였는데, 이날 밤 세찬 바람이 불고 찬비가 내리니 군사들이 강을 건너면서 물에 젖고 습기가 차서 길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만을 헤아렸다. 왕세충이 홀로 수천 명과 더불어 하양에 도착하여 스스로 감옥에 구금되어 죄받기를 청하니 월왕(越王) 양동(楊侗)이 사자를 파견하여 그를 사면하고 동도로 돌아오도록 불러서 금과 비단과 미녀를 하사하여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왕세충이 도망하고 흩어진 사람들을 거두어 모아 1만 명을 얻을 수가 있어서 함가성(含嘉城)에 주둔하면서 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였다.

12. 빛나는 한신(韓信)의 지략

60) 王世充 : ?~621. 자는 행만(行滿)이고, 본성은 지(支)이다. 원래 서역 출신으로 수 나라 양제의 신임을 얻어 여러 차례 반란군을 진압하였고, 618년에 양제가 살해되자 황손을 옹립하였으나 이듬해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제위에 올라 정(鄭) 나라를 세웠다. 621년 이세민에게 패하여 살해되었다.

61) 東都 : 낙양(洛陽)을 이른다.

62) 李密 : 582~618. 수(隋) 나라 말기 사람. 양현감(楊玄感)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체포되었으나 탈주했다. 적양의 군을 장악, 당 왕조가 세워졌을 때 최대의 반란집단으로 부상했다.

63) 浮橋 : 배를 엮어 만든 다리로, 일명 '배다리'라고 한다.

64) 外柵 : 진지 바깥에 치는 목책을 이른다.

65) 繫獄 : 감옥에 몸이 묶여 갇히다.

한신(韓信)은 성을 지키는 적들을 유인하여 빈 성을 차지하는 전법을 썼다. 모든 사람들 건성으로 그의 전략을 들었지만 장이(張耳)와 협공하여 결국 조 나라 왕 혈(歇)을 사로잡는다.

20 韓信⁶⁶⁾이 使人間視⁶⁷⁾하야 知其不用廣武君⁶⁸⁾策하고 大喜하야 乃敢引兵遂下⁶⁹⁾라가 未至井陘⁶⁹⁾口三十里하야 止舍라 夜半에 傳發⁷⁰⁾하야 選輕騎輕騎二千人하야 人持一赤幟하고 從間道하야 望趙軍하고 誡曰 趙見我走면 必空壁逐我하리니 若⁷¹⁾이 疾入趙壁하야 拔趙幟하고 立漢赤幟하라 令裨將傳餐⁷¹⁾曰 今日에 破趙會食호리라 諸將이 皆莫信하고 佯應曰 諾다하다 乃使萬人으로 先行出背水陣하니 趙軍이 望見大笑라 平朝에 信이 建大將旗鼓하고 鼓行出井陘口하니 趙開壁擊之라 大戰良久에 信與張耳⁷²⁾가 佯棄鼓旗하고 走水上軍한대 趙果空壁하야 爭漢旗鼓하고 逐信、耳라 信、耳已入水上軍하야 軍皆殊死戰殊死戰하야 不可敗요 信의 所出奇兵二千이 遂馳入趙壁하야 皆拔趙旗하고 立漢赤幟하다 趙軍이 已不能得信等하고 還歸壁하니 壁皆漢幟라 見而大驚하야 兵亂遁走어늘 漢兵이 夾擊하야 大破趙軍하고 斬成安君⁷³⁾泚水上하고 擒趙王歇하다 《資治通鑑》 〈漢紀·高帝〉

21 遂 마침내 수 陘 지레목형 輕 가벼울 경 騎 말탈기 赤 붉을 적 幟 깃발치 壁 벽벽 裨 도울비 餐 먹을찬 破 깨뜨릴 파 諾 대답할락 擊 칠격 佯 거짓양 棄 버릴기 鼓 북고 旗 깃발기 殊 죽일수 奇 기이할기 馳 달릴치 拔 뺄발 還 돌아올환 亂 어지러울란 夾 곁협 斬 잘참조 擒 사로잡을금 歇 실혈

한신(韓信)이 사람을 시켜 몰래 엿보게 하여, 광무군(廣武君)의 계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기뻐하였다. 이에 감히 병력을 인솔하고 마침내 내려가 정형(井陘) 어구에서 30리에 이르지 않아 머물러 쉬었다. 한밤중에 전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하여〉 정에 기병 2천 명을 선발하여 사람마다 붉은 깃발을 하나씩 잡게 하고 셋길을 따라 가서 조(趙) 나라 군영을 바라보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조 나라 〈군사들은〉 우리가 달아나는 것을 보면 반드시 성벽을 비우고 우리를 추격할 것이니, 너희들[若]은 빨리[疾] 조 나라 성벽으로 들어가서 조 나라의 깃발을 뽑아버리고 우리 한(漢) 나라의 붉은 깃발을 꽂아라.”라고 하였다. 그리고 비장(裨將)들로 하여금 간단한 밥을 날라 오게 하며 말하기를, “오늘 조 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회식하겠다.”라고 하니, 여러 장수들이 모두 믿지 않고 건성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1만 명으로 하여금 먼저 행군하여 나가 배수진을 치게 하니, 조 나라 군사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크게 비웃었다. 새벽에 한신이 대장군의 깃발과 북을 세우고 북을 치며 행군하여 정형 어구를

66) 韓信 : ?~B.C. 196. 중국 한(漢) 나라 초의 무장. 초 나라의 항량·항우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아 한왕 유방의 수하가 되어 대장군이 되었다.

67) 間視 : 몰래 엿보다.

68) 廣武君 : 조(趙) 나라 이좌거(李左車 : ?~?)를 이름. 한신(韓信)이 한(漢) 나라 대장이 되어 조 나라를 칠 때 광무군이 대장인 진여(陳餘)에게 한신을 격파할 기이한 계책을 말하니, 진여가 듣지 않았는데 한신이 첩자로 하여금 정탐해 이좌거의 계책이 쓰여 지지 않음을 알고, 조 나라를 공격해 부수었다.

69) 井陘 : 하북성(河北省) 남서부의 현(縣)의 이름이다.

70) 傳發 : 군대 안에 전령을 내려 병사를 동원함을 이른다.

71) 傳餐 : 사람을 시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날라 오게 함을 이른다. 일명 전찬(傳飡)이라고도 한다.

72) 張耳 : ?~B.C. 202. 전국시대 말기 대량(大梁) 사람. 시호는 경(景)이다. 위공자(魏公子) 신릉군(信陵君)의 식객이 되고, 일찍이 외황령(外黃令)이 되었다. 진여(陳餘)와 함께 병사를 일으켜 문경지교(刎頸之交)를 맺었다. 진 나라 말에 진섭(陳涉)이 반란을 일으키자 진여와 함께 교위(校尉)가 되어 무신(武臣)을 따라 조(趙) 땅을 정벌했다.

73) 成安君 : 조(趙) 나라 장수 진여(陳餘)를 가리킨다.

나가니, 조 나라가 성벽을 열고 공격하였다. 한동안 크게 싸우다가 한신과 장이(張耳)가 거짓으로 북과 깃발을 버리고 물가에 주둔해 있는 군대로 도망하니, 조 나라가 과연 성벽을 비우고 한 나라의 북과 깃발을 다투어 취하고 한신과 장이를 추격하였다. 한신과 장이가 이미 물가에 있는 군대로 들어가서 군사들이 모두 결사적으로 싸워 패배시킬 수가 없었으며, 한신이 내보낸 기병 2천 명이 마침내 달려가서 조 나라 성벽으로 들어가 조 나라 깃발을 모두 뽑아 버리고 한 나라의 붉은 깃발을 세웠다. 조 나라 군사들이 이미 한신 등을 잡지 못하고 성벽으로 돌아가니, 성벽에는 모두 한 나라 깃발이 꽂혀 있었다. 이것을 보고 크게 놀라 군사들이 혼란하여 도망가자, 한 나라 군대가 협공하여 조 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성안군(成安君)을 지수(氐水) 가에서 목 베고 조 나라 왕 혈(歇)을 사로잡았다.

13. 굴뚝을 고치고 땔나무를 옮기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징조가 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징조를 보고도 벌어질 사태를 미연에 방지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보고도 몰라 일을 망치고 만다.

霍氏⁷⁴謀反伏誅하고 夷其族하며 告者皆封列侯라 初霍氏奢縱하니 茂陵徐福⁷⁵上疏言하여 宜以時抑制하여 無使至亡이라 書三上이나 不聽하고 至是라 人爲徐生上書曰 客有過主人이라가 見其竈直突하고 傍有積薪하고 謂主人更爲曲突하고 速徙其薪이라한데 主人不應이라가 俄失火하야 鄉里共救之하야 幸而得息이라. 殺牛置酒하야 謝其鄉人이라 人謂主人曰 鄉使聽客之言이면 不費牛酒하고 終無火患이라. 今論功而賞하며 曲突徙薪無恩澤하고 焦頭爛額爲上客邪오라고 하다 上乃賜福帛하고 以爲郎이라 《漢書》〈霍光傳〉

22 霍 바를 곽 誅 벨 주 夷 오랑캐 이 族 겨레 족 封 봉할 봉 奢 사치할 사 縱 늘어질 종 茂 무성할 무 陵 무덤릉 福 복 복 抑 누를 억 竈 부엌 조 突 굴뚝 돌 積 쌓을 적 薪 땔나무 신 徙 옮길 사 俄 갑자기 아 置 둘 치 患 근심환 澤 은택택 焦 그을릴 초 爛 문드러질 란 額 이마액 帛 비단백

곽광(霍光)이 모반하여 주멸되고 일족이 처단되었으며 고발한 사람들은 모두 열후(列侯)에 봉해졌다. 처음에 곽씨가 사치하고 방종하니, 무릉(茂陵)의 서복(徐福)이 상소를 올려 마땅히 그때그때마다 제지하여 패망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 번이나 글을 올렸지만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 서생에게[爲] 글을 올려 말하기를, “어떤 나그네가 주인집을 지나가다가 그의 부엌 굴뚝이 반듯하고 그 옆에는 땔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다시 굽은 굴뚝을 만들고 땔나무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일러주었지만 주인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윽고 불이 나서 동네사람들이 함께 불을 끄자, <주인은> 소를 잡고 술을 마련하여 동네사람들에게 감사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여 ‘<주인이> 만약 그 나그네의 말을 들었더라면 소 잡고 술을 마련하는데 <비용을> 허비하지 않고 끝내 불이 나는 근심은 없었을 것이요. 이제 공을 논의하여 상을 주면서, 굴뚝을 굽히고 땔나무를 옮기라고 한 사람은 은공에 대한 혜택이 없고, 머리 그을리고 이마를 덴 사람만 뒷자리의 손님으로 삼습니까?’라고 하였다고 합니다.”라고 하자, 임금이 그 글을 읽고 서복에게 비단을 하사하고 <벼슬을 내려> 낭(郎)으로 삼았다.

74) 霍氏 : 곽광(霍光, ?~B.C. 68?), 서한 하동(河東)사람으로, 자는 자맹(子孟)이다. 한 무제 때의 명장 곽거병(霍去病)의 이복동생이다.

75) 徐福 : ?~?. 진 나라 때의 방사(方士)로 자는 군방(君房)이다. 진시황의 명을 받들고 불로초를 찾아 전남전해 3천 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14. 차라리 죽을지언정

낙의(樂毅)가 처음 제 나라를 격파하고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연(燕) 나라를 돕도록 청했다. 끝내 사양하고 목을 매 자살하였다.

23 樂毅⁷⁶⁾가 聞畫邑人王蠋⁷⁷⁾賢하얀 令軍中環畫邑三十里無入하고 使人請蠋한테 蠋謝不往이라 燕人曰 不來면 吾且屠畫邑이라하니 蠋曰 忠臣不事二君하고 烈女不更二夫하니 齊王不用吾諫하야 故退而耕于野터니 國破君亡하니 吾不能存한테 而又欲劫之以兵하니 吾與其不義而生론 不若死이라하고 遂經其頸而死하다 《通鑑節要》 〈周紀·赧王〉

24 毅 군설 의 蠋 나비 에벌레 촉 環 두를 환 屠 잡을 도 耕 밭갈 경 破 깨뜨릴 파 劫 겁줄 겁 經 목매 경 頸 목경

악의(樂毅)가 화읍(畫邑) 사람 왕촉(王蠋)이 어질다는 말을 듣고 군중에 명령을 내려 화읍의 삼십 리 땅을 둘러싸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시켜 왕촉을 청한대 왕촉이 사양하고 오지 않았다. 연 나라 사람이 말하기를, “오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고을을 도륙할 것이다.”라고 하니 왕촉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남편을 〈두 번〉 바꾸지 않으니, 제 나라 왕이 나의 간언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 들에서 밭을 갈았는데 나라가 깨어지고 임금이 죽었으니 내가 살 수도 없는데 또 군대로 위협하려 하니 내가 정의롭지 못하게 살기보다는 죽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는 마침내 목을 매달아 죽었다.

15. 동해에 뛰어들지라도 그의 백성은 되지 않겠다.

노중련(魯仲連)은 무도한 진 나라의 백성이 되기보다 차라리 동해에 뛰어 들어 죽겠다는 의지에, 신원연(新垣衍)은 천하의 신비라고 감탄하였다.

25 甲辰五十八年이라 魏王이 使晉鄙⁷⁸⁾救趙한테 秦王使謂魏王曰 吾攻趙하면 旦暮且下하리니 諸侯敢救者는 必移兵先擊之하리라하니 魏王恐하야 止晉鄙壁鄴하며 又使將軍新垣衍⁷⁹⁾으로 說(세)趙王하야 欲共尊秦爲帝하며 以却其兵이라 魯仲連⁸⁰⁾聞之하고 往見衍曰 彼秦者는 棄禮義而上首功⁸¹⁾之國也라 彼卽肆然⁸²⁾而爲帝이면 則連有蹈東海而死耳며 不願爲之民也라 今秦는 萬乘之國也오 梁도 亦萬乘之國也니 從而帝之면 秦將行天子之禮하며 以號令於天下하며 變易(역)諸侯之大臣이니 彼將奪其所不肖하야 而與其所賢하고 奪其所憎하야 而與其所愛면

76) 樂毅 : B.C. 324~262. 중산(中山) 영수출신이다. 성은 자(子), 씨는 악씨(樂氏), 자는 영패(永霸)이다. 위(魏) 나라 장수 악양(樂羊)의 후손으로 병법에 뛰어났다. 전국시대 연 나라 소왕이 즉위하여 널리 인재를 구하는 정책을 펴자 연 나라로 와서 상장군(上將軍)이 되었다.

77) 王蠋 : ?~B.C. 284. 전국시대 제(齊) 나라 화읍(畫邑) 사람이다.

78) 晉鄙 : ?~B.C. 257. 전국시대 위(魏) 나라 사람. 안리왕(安釐王) 때 장군을 지냈다. 진(秦) 나라가 한단(邯鄲)을 포위하자 조(趙) 나라가 위 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79) 新垣衍 : ?~?. 일명 신향연(辛垣衍)이다. 전국시대 위 나라 사람이다.

80) 魯仲連 : 노련(魯連)이라고도 한다. 전국시대 후기 제 나라 사람이다. 그는 기발하고 장쾌하게 그리고 세속을 초탈한 책략을 구사하여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부귀에 전혀 뜻을 두지 않고 고상한 절개를 지켰다.

81) 首功 : 적의 머리를 뱀 공훈.

82) 肆然 :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방자함.

梁王安得晏然⁸³⁾而已乎^오하니 衍起再拜曰 吾乃今知先生天下之士也^니 不敢復^(부)言帝秦
矣^라하다 《通鑑節要》 〈周紀·赧王〉

鄙 비루할 비 暮 저물 모 擊 칠 격 鄴 땅이름 업 肆 방자할 사 壁 벽 벽 垣 담 원 說 유
세할 세 却 물리칠 각 棄 버릴 기 蹈 밟을 도 乘 탈 승 梁 들보 량 變 변할 변 奪 뺏을
탈 肖 닮을 초 憎 미워할 증 晷 늦을 안

갑진 58년이다. 위 나라 왕이 진비(晉鄙)로 하여금 조 나라를 구하게 하였는데, 진 나라 왕의 사신이 위 나라 왕에게 이르기를 “내가 조 나라를 치면, 하루아침에 장차 항복시킬 것이니, 제후들 중에 감히 구하는 자는 반드시 병사를 이동하여 먼저 칠 것이다!”라고 하니 위왕(魏王)이 두려워서, 진비를 저지하고 업(鄴)을 굳게 지키게 하였으며, 또 장군 신원연(新垣衍)을 사신으로 하여, 조 나라 왕을 설득하여 같이 진을 황제로 높이자 하였으며, 이로써 그 병사를 퇴각시켰다. 노중련(魯仲連)이 듣고 나서 신원연을 가서 보며 말하기를, “저 진 나라는, 예의를 버리고 적의 머리를 벨 공을 으뜸으로 여기는 나라이다. 저들이 곧 방자하게 황제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곧 동해에 뛰어들어 죽을 뿐이며, 백성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진 나라도 만승의 나라이고, 양 나라도 만승의 나라인데, 쫓아서 황제로 여긴다면 진 나라가 장차 천자의 예를 행하며 천하에 호령하면서 제후의 대신을 바꿀 것인데, 그가 장차 불초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빼앗아서 그가 현명하다고 하는 곳에 주고 그 미워한 곳에서 빼앗아 사랑하는 곳에다가 주면 양왕(梁王)이 어찌 편함을 얻었을 뿐이라고 하겠는가!”라고 하니, 신원연이 일어나 두 번 절하며 말하기를, “제가 이제야 선생이 천하의 선비임을 알겠습니다! 감히 다시 진 나라를 황제로 삼겠다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16. 그대의 아들에게 나의 딸을 시집보낼 것이니

후한 때 광무제(光武帝)는 가복(賈復) 장군을 매우 아꼈다. 하루는 전투에 참여한 가복이 심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는 아직 임신 중인 가복의 아이를 자신의 자식과 혼인시켰다고 발표한다.

26 都護將軍賈復⁸⁴⁾(복)이 與五校로 戰於眞定⁸⁵⁾한데 復傷瘡甚이라王大驚曰 我所以不令賈復別將者은 爲其輕敵也라 果然失吾名將이로다 聞其婦有孕하야 生女耶어든 我子娶之하고 生男耶어든 我女嫁之하야 不令其憂妻子也하리라한데 復病尋愈하야 追及於薊하니 相見甚謹이라
《通鑑節要》 〈東漢紀·世祖光武皇帝〉

27 都 도읍도 護 보호할 호 賈 값가 傷 다칠상 瘡 부스럼 창 甚 심할심 驚 놀랄경 輕 가벼울경 敵 적적 孕 아이배잉 娶 장가들취 嫁 시집갈가 尋 찾을심 愈 나을유 薊 삼주계 謹 시끄러울환

도호장군(都護將軍) 가복(賈復)이 오교(五校)와 진정현(眞定縣)에서 싸우다가 가복이 심한 상처를 입었다. 왕이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가복으로 하여금 따로 군대를 거느리지 않

83) 晏然 : 마음이 편안함.

84) 賈復 : 9~55. 자는 군문(君文)이다. 본래 문사(文士) 출신이었지만 전투에선 과감하고 언제나 술선수범하여 좌장군(左將軍)·교동후(膠東侯)에 봉해졌다.

85) 眞定 : 지금의 하북성(河北省) 정정현(正定縣)을 이른다.

게 한 까닭은, 적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었다. 과연 나의 명장을 잃었도다! 내가 들으니 그 부인이 임신하였다고 하니 딸을 낳거든 내 아들을 장가보내고, 아들을 낳으면 내 딸을 시집보내서 그가 처자를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다시 병이 쾌유하여서 뒤따라 게(薊) 땅에 이르자 서로 보면서 매우 기뻐하였다

17. 황제, 벼를 만나다.

엄광(嚴光)은 동한(東漢)의 황제로 등극한 유수(劉秀)와 친한 벼이었다. 하루는 황제를 찾아가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이 들었다가 벼인 황제의 배에 다리를 걸치고 잤다. 아침에 천문을 관찰하는 관리가 황제의 별에 객성이 침입했다고 보고하였지만 황제는 태연히 웃을 뿐이었다.

28 復(부)引光⁸⁶⁾入하야 論道舊故⁸⁷⁾하며 相對累日⁸⁷⁾이라 因共偃臥하야 光以足加帝腹(복)上이라 明日太史奏客星⁸⁸⁾犯御座甚急이라 한테 帝笑曰 朕故人嚴子陵共臥耳이라하다 除爲諫議大夫로되 不屈하고 乃耕於富春山⁸⁹⁾이라 後人名其釣處하야 爲嚴陵瀨焉이라하다 《通鑑節要》 〈東漢紀·世祖光武皇帝〉

29 舊 옛구 累 쌓을루 偃 누을언 臥 누을와 復 배복 犯 범할범 御 다스릴 어 座 자리좌 急 급할급 朕 나짐 嚴 엄할 엄 陵 무덤릉 除 제수할제 諫 간할간 屈 굴힐굴 耕 밭갈경 釣 낚시조 瀨 여을뇌

다시 엄광(嚴光)을 불러들여서 도와 옛일을 논하면서 여러 날을 상대하였다. 인하여 함께 누워 자면서 엄광이 발을 황제의 배위에 올려놓았다. 다음날, 태사가 아뢰기를 객성(客星)이 어좌(御座)를 범한 것이 매우 급하다고 하니 황제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짐은 벼인 엄자릉(嚴子陵)과 같이 누웠을 뿐이다.”고 하였다. 〈그에게〉 간의대부(諫議大夫)의 벼슬에 제수하였지만 굽히지 않고, 마침내[乃] 부춘산에서 발을 갈았으니 뒤에 사람들이 그가 낚시하는 곳을 엄릉뢰(嚴陵瀨)라고 불리었다.

18. 맹획(孟獲), 일곱 번 제갈량에게 사로잡히다.

남쪽에서 반란을 일으킨 맹획(孟獲)을 제갈량(諸葛亮)은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자 그에게 복종하였다.

30 七月에 丞相亮⁹⁰⁾이 至南中하야 所在에 戰捷이라 由越嶲⁹¹⁾入하야 斬雍闓⁹²⁾하다 孟獲⁹³⁾이 收闓餘

86) 光 : 엄광(嚴光, B.C. 39~A.D. 41). 회계(會稽)출신으로, 다른 이름은 준(遵)이고, 자는 자릉(子陵)이다. 본래 성은 장(莊)이다. 동한 광무제 유수(劉秀)의 절친한 친구로, 유수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를 도왔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 즉위하자 이름을 바꾸고 부춘산(富春山)에 은거했다.

87) 累日 : 여러 날. 며칠.

88) 客星 : 일정한 곳에 늘 있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별

89) 富春山 : 중국 절강성(浙江省) 부춘강(富春江)을 끼고 있는 산 이름이다.

90) 亮 : 제갈량(諸葛亮, 181~234). 중국 삼국시대 촉 나라의 재상이자 정치가이다. 자는 공명(孔明)으로 흔히 제갈공명(諸葛孔明)으로 불린다. 별호는 와룡(臥龍) 또는 복룡(伏龍)이다. 후한 말 군웅인 유비를 도와 촉한을 건국하는 제업을 이루었다.

91) 越嶲 :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있는 지명으로 지금은 월서(越西)라고 쓴다.

92) 雍闓 : ?~225. 후한 말기 때 사람이다. 촉(蜀) 나라에 반기를 들었고, 건녕태수(建寧太守)를 지냈다. 맹획(孟獲)과 합세했다가 제갈량(諸葛亮)의 반간계(反間計)에 빠져 고정(高定)과 자신의 부하 악환(鄂煥)에게 죽임을 당했다.

衆하야 以拒亮하니 獲이 素爲夷、漢所服이라 亮이 募生致⁹⁴⁾之하야 旣得에 使觀於營陳之間하고 問曰 此軍이 何如오 獲曰 向者에 不知虛實故로 敗어니와 今蒙賜觀營陳하니 若祇如此면 卽定易(이)勝耳니이다 亮이 笑하고 縱使更戰하야 七縱七禽하고 而亮猶遣獲한대 獲이 止不去曰 公은 天威也라 南人이 不復(부)反矣라하니 自是로 終亮之世토록 夷不復(부)反하니라 《通鑑節要》 〈漢紀·後皇帝〉

31 亮 밝을랑 捷 이길 침 越 념을 일수 嶭 종족이름수 斬 벨 참 雍 누그러질 웅 闔 열개 獲 얻을획 拒 막을거 素 평소소 募 모을모 營 병영명 向 접대향=嚮 虛 빌허 實 실패실 夢 입을몽 賜 줄사 祇 다만지=只 笑 웃을소 縱 놓아줄종 更 다시 갱 禽 사로잡을금=擒 遣 보낼견 威 위엄위

7월에 승상(丞相) 제갈량(諸葛亮)이 남중(南中)에 이르러 이르는 곳마다 싸워서 승리하였다. 월수(越雋)로부터 쳐들어가 웅개(雍闓)의 〈목을〉 베었다. 맹획(孟獲)이 웅개의 남은 무리를 수습하여 제갈량에게 항거하니, 맹획은 평소 오랑개와 한족에게 복종을 받고 있었다. 제갈량이 현상금을 내걸어 생포해 오게 하고, 이미 사로잡은 뒤에 〈맹획으로〉 하여금 진영 사이를 구경하게 하고는 묻기를 “이 군대가 어떠한가?” 하니, 맹획이 말하기를, “지난번에는 허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였지만 지금 은혜를 입어 진영을 구경하였으니, 만약 단지 이와 같을 뿐이라면 반드시[定]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제갈량이 웃으며 풀어 주고 그에게 다시 싸우도록 해주고 일곱 번 풀어 주었다가 일곱 번 사로잡고는 제갈량은 오히려 맹획을 보내 주니, 맹획이 멈추고 가지 않으며 말하기를, “공은 하늘이 내신 위엄이십니다. 남쪽 사람들이 감히 다시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이후로 제갈량이 생애를 마치도록 오랑개가 다시는 배반하지 않았다.

19. 죽은 제갈량이 산 중달을 물리치다

제갈량(諸葛亮)이 죽었지만 그의 계략에 따라 사마의(司馬懿)를 물리치자, 사람들의 입에 “죽은 제갈량이 살아 있는 사마의를 달아나게 했다.”는 말이 오르내렸다.

32 是月에 亮卒於軍中하다 長史楊儀⁹³⁾整軍而出이라 百姓奔告司馬懿⁹⁶⁾하니 懿追之라 姜維⁹⁷⁾令儀反旗鳴鼓하며 若將向懿者하니 懿斂軍退하야 不敢逼이라 于是에 儀結陳而去하고 入谷然後發喪이라 百姓爲之諺曰 死諸葛이 走生仲達⁹⁸⁾이라하니 懿聞之하고 笑曰 吾能料生이나 不能料死故也라하다. 懿案行亮之營壘處⁹⁹⁾所하얀 嘆曰 天下奇才也로다하고 追至赤岸이나 不及而還이라 《通鑑節

93) 孟獲 : ?~?. 삼국시대 촉(蜀) 나라 건녕(建寧) 사람. 유비(劉備)가 죽자 웅개(雍闓)와 함께 촉 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남쪽을 정벌하는 제갈량(諸葛亮)에게 일곱 번 붙잡혔다가 일곱 번 풀려난 뒤 항복하여 심복(心腹)이 되었다.

94) 生致 : 생포하다.

95) 楊儀 : ?~235. 자는 위공(威公)이고, 촉의 문신이다. 제갈량이 위를 치고자 군사를 일으킬 때 함께 출전하여 대소사를 돕는다. 제갈량이 죽자 전군을 맡아 위연(魏延)의 모반을 꺾는 등 많은 공을 세웠으나, 중용되지 않아 불평하다가 쫓겨난다.

96) 司馬懿 : 179~251. 중국 삼국시대 위(魏) 나라의 정치가이자 군략가로, 자는 중달(仲達)이다. 서진(西晉) 건국의 기초를 세웠다.

97) 姜維 : 202~264. 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장수. 자는 백약(伯約). 위(魏)의 군리(郡吏)였다가 제갈량(諸葛亮)이 북벌할 때 그를 따라가 촉한의 장수가 되어 수차례 전공을 세웠다. 위(魏) 나라 종회(鍾會)의 침공으로 유선(劉禪)이 항복하자 종회(鍾會)에게 귀순하였다. 종회와 손잡고 반란을 일으켰으나 발각되어 실패하고 자살하였다.

98) 仲達 : 사마의(司馬懿)의 자다.

99) 營壘 : 군영(軍營)의 보루(堡壘).

要》 〈漢紀·後皇帝〉

33 楊 버들 양 儀 거동의 整 가지런할 정 奔 달아날 분 懿 아름다움 의 旗 깃발 기 鼓 북 고 斂 거들 렴 逼 닥칠 핏 料 헤아릴 료 案 살필 안 嘆 탄식할 탄=歎 奇 기이할 기 岸 언덕 안 還 돌아올 환

이 달, 제갈량(諸葛亮)이 전장에서 죽었다. 장사(長史) 양의(楊儀)가 군대를 정돈하여 퇴각하였다. 백성들이 달려가서 사마의(司馬懿)에게 알렸더니, 사마의가 그 〈뒤를〉 추격하였다. 강유(姜維)가 양의(楊儀)로 하여금 깃발을 돌리고 북을 울리면서, 마치 장차 사마의를 향하여 나아갈 것처럼 하게 하니, 사마의는 군사를 거두어서 물러나 감히 핏박하지 못하였다. 이에 양의는 군진을 결속하여 떠나 야곡(斜谷)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갈량의〉 상사를 발표하였다. 백성들이 이것을 속담으로 만들어 말하기를, “죽은 제갈량이 살아 있는 중달(仲達)을 달아나게 하였다.”고 하니, 사마의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그가〉 살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죽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사마의는 제갈량의 영루(營壘)가 있던 곳을 돌아보고는, 감탄을 하며 말하기를, “천하의 기이한 재주로다!”라고 하고, 뒤를 추격하여 적안(赤岸)에 이르렀으나, 따라 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20. 창업과 수성(守城), 무엇이 어려운가?

당 나라 태종(太宗)이 나라를 건국하고 방현령(房玄齡)과 위증(魏徵)에게 창업과 수성 중 무엇이 어려운지 묻는다. 두 사람은 각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방현령은 창업을, 위정은 수성이 어렵다고 대답한다. 이를 들은 태종은 이미 나라를 건국하였으니 수성에 힘쓰겠다고 대답한다.

34 貞觀十年이라 太宗謂侍臣曰 帝王之業에 草創與守成에 孰難고 하니 尚書左僕射¹⁰⁰⁾房玄齡¹⁰¹⁾對曰 天地草昧¹⁰²⁾에 群雄競起하야 攻破乃降(항)하며 戰勝乃克하니 由此言之면 草創爲難이라 魏徵對曰 帝王之起엔 必承衰亂하야 覆(부)彼昏狡¹⁰³⁾하면 百姓樂推하고 四海歸命이라 天授人與하니 不爲難이라 然既得之後에 志趣驕逸이면 百姓欲靜而徭役不休하야 百姓凋殘而侈務不息이면 國之衰弊는 恒由此起하니 以斯而言이면 守成則難이라 太宗曰 玄齡이 昔從我定天下히 備嘗艱苦하고 出萬死而遇一生하야 所以見草創之難也라 魏徵與我安天下에 慮生¹⁰⁴⁾驕逸之端는 必踐危亡之地라하니 所以見守成之難也이라 今草創之難은 既已往矣니 守成之難者은 當思與公等慎之라 《貞觀政要》 〈君道〉

35 觀 불관 創 만들 창 孰 누구 속 射 벼슬 이름 야 齡 나이 령 群 무리 군 競 다들 경 降 항복할 항 勝 이길 승 徵 부릴 징 衰 쇠약할 쇠 亂 어지러울 란 推 밀 추 歸 돌아올 귀 驕 교만할 교 逸 음탕할 일 靜 고요할 정 徭 구실요 役 일역 凋 시들 조 殘 헤칠 잔 侈 사치할 치 弊 해질 폐 艱 어려울 간 虛 바그릇도 端 바를 단 踐 밟을 천 慎 삼갈 신

정관(貞觀) 10년, 태종이 시신(侍臣)에게 이르기를, “제왕의 사업에 창업과 수성(守成) 중 어떤

100) 左僕射 : 상서성(尚書省)에 딸린 정2품급 직책으로 당·송·신라·고려에 있던 직책이다.

101) 房玄齡 : 578~648. 당(唐) 나라의 재상으로 본명은 방교(房喬)이고, 자는 현령(玄齡)이다. 태자태부(太子太傅)에 임명되었고 사후에는 태위병주도독(太尉并州都督)에 추증되었다.

102) 草昧 : 나라가 통일되기 전이나 개국의 초기를 이른다.

103) 昏狡 : 혼매(昏昧)하고 교활함.

104) 慮生 : 당태종이 자신을 낮추어 하는 말이다.

것이 어려운가?”라고 물으니, 상서(尙書)인 좌복야(左僕射) 방현령(房玄齡)이 답하기를 “세상에 아직 천하가 통일되기 전에 군웅(群雄)이 다투어 일어나며 공격하여 깨뜨려야 항복하며 전쟁에서 이겨야 극복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말한다면 창업이 어렵습니다.”라고 하자, 위징(魏徵) 대답하기를, “제왕이 일어남에 반드시 <이전 왕조로부터> 쇠란을 이어받아 저 혼매(昏昧)하고 교활한 무리를 엮어버리면 백성들이 즐거이 천자를 추대하고 천하가 귀순합니다. <이는> 천명이 사람에게 준 것이니, 곧 수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뜻이 성취된 뒤 임금의 뜻과 취지가 오만해지고 방일해져 백성들은 안정을 바라지만 부역에 설 틈이 없어서 백성은 쇠잔하여 사치스런 일이 계속됩니다. 나라는 쇠퇴하고 피폐해지는 것은 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대답하기를, “현령은 지난 날 나를 따라 천하를 평정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였기 때문에 창업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위징은 나와 함께 천하를 안정시키면서 나의 마음속에 오만하고 방일한 실마리가 생길까 염려하고 그것은 위태롭게 명망의 길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수성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창업의 어려움은 이미 지난 일이 되었으니 수성의 어려움을 마땅히 공들과 함께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21. 충신(忠臣)과 양신(良臣)의 차이

위징(魏徵)이 충신(忠臣)과 양신(良臣)의 차이를 당태종에게 대답하자 태종은 나라를 위한 계획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36 徵이 乃拜而言曰 臣以身許國¹⁰⁵⁾하야 直道而行하며 必不敢有所欺負이라 但願陛下는 使臣爲良臣이면 勿使臣爲忠臣이라 太宗曰 忠良有異乎아 徵曰 良臣使身獲美名하고 君受顯號¹⁰⁶⁾하며 子孫傳世하며 福祿無疆이라 忠臣身受誅夷¹⁰⁷⁾하고 君陷大惡(악)하야 家國並喪한데 獨有其名하니 以此而言이면 相去遠矣라 太宗曰 君는 但莫違此言하라 我必不忘社稷之計하리라 하고 乃賜絹二百匹하다 《貞觀政要》 〈直諫〉

37 徵 부를 장 直 곧을 직 欺 속일 사 負 등질 부 異 다름 이 獲 얻을 획 顯 드러날 현 福 복 복 祿 복 복 疆 지경 강 誅 죽일 주 夷 죽일 이 陷 빠질 함 並 아우를 병 喪 잃을 상 稷 기장 직 賜 줄 사 絹 명주 견

위징(魏徵)은 이에 절을 하며 말하기를, “신은 몸을 나라에 바쳐 바른 도리를 행하며 반드시 거짓을 감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원하옵건대 폐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어진 신하가 되게 하려면 신이 충신이 되지 말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자, 태종이 대답하기를, “충신(忠臣)과 양신(良臣)에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자, “양신(良臣)은 자신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고 군주에게 아름다운 칭호를 받아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끝없는 복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신은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군주는 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나라가 모두 없어졌는데 홀로 그 이름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가지고 말한다면 <양신과 충신의> 거리는 서로 멀다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태종이 말하기를, “그대는 오직 그 말을 어기지 말라. 나는 반드시 사직을 <위한> 계획을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위징에게 비단 200필을 하사하였다.

105) 許國 :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하다.

106) 顯號 : 아름다운 이름. 또는 세상에 뚜렷이 나타난 명호.

107) 誅夷 : 토벌하여 평정함. 또는 모조리 살륙함.

22. 두 개의 국호, 조선(朝鮮)과 화령(和寧)

조선이 건국하고 나서 조선과 화령, 두 개 중 하나를 재가 받기 위해 중국으로 사신을 보냈다.

38 遣藝文館學士韓尙質¹⁰⁸⁾하야 如京師^{하야} 以朝鮮、和寧으로 請更國號^{하니} 奏¹⁰⁹⁾에 曰陪臣¹¹⁰⁾趙琳¹¹¹⁾回自京師^{하야} 欽齋到禮部咨¹¹²⁾한데 欽¹¹³⁾奉聖旨¹¹⁴⁾節該¹¹⁵⁾한데 高麗果能順天道合人心^{하야} 以妥東夷之民^{하고} 不生邊釁^{이면} 則使命往來^{이니} 實彼國之福也^{이라} 文書到日^에 國更何號^을 星馳¹¹⁶⁾來報^{라하다} 欽此切念^{컨대} 小邦王氏之裔¹¹⁷⁾가 昏迷不道^{하야} 自底於亡^{이니} 一國臣民^이 推戴臣權監國事^{하니} 驚惶戰栗¹¹⁸⁾하야 措躬無地^{間이라} 欽蒙聖慈許臣權知國事^{하고} 仍問國號^{하니} 臣與國人感喜尤切^{이라} 臣竊思惟^{컨대} 有國立號^은 誠非小臣所敢擅便^{(편)¹¹⁹⁾이라} 謹將朝鮮、和寧等號로 聞達天聰¹²⁰⁾하니 伏望取自聖裁^{하소서} 《王朝實錄》 〈太祖〉

39 遣 보낼 건 藝 심을 예 韓 나라 한 質 바탕 질 寧 편안할 령 奏 아릴 주 陪 모실 배 琳 아름다운 옥 림 欽 공경함 흠 齋 가져올 재 妥 편안할 타 邊 가 변 釁 틈 혼 福 복 복 馳 달릴 치 裔 후손 예 瑤 아름다운 옥 요 迷 미혹할 미 戴 일대 監 볼 감 驚 놀랄 경 惶 두려울 황 戰 싸울 전 栗 두려울 을=慄 措 둘 조 躬 몸 궁 蒙 입을 몽 慈 사랑할 자 仍 거듭 잉 號 부를 호 感 느낄 감 竊 흠칠 절 擅 맘대로 할 천 便 편한 편 等 갈을 등 達 전달할 달 聰 귀밝을 총 望 바랄 망 裁 마음질할 재

예문관학사(藝文館學士) 한상질(韓尙質)을 보내어 중국 남경(南京)에 가서[如] 조선이나 화령(和寧)으로 국호를 고치기를 요청하도록 했다. 주문(奏文)에 이르기를, “배신(陪臣) 조임(趙琳)이 중국 남경에서 돌아와서 삼가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자문에〉, ‘삼가 성지(聖旨)를 받든 절해(節該)에, 고려에서 과연 능히 천도(天道)에 순응하고 인심에 합하여, 동이(東夷)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변방의 시끄러운 일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사절(使節)이 왕래하게 될 것이니, 실로 그 나라의 복이다. 문서가 도착하는 날에 나라는 어떤 칭호를 고칠 것인지를 빨리 달려와서 보고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간절히 생각하건대, 저희 작은 나라는 왕씨(王氏)의 후손인 요(瑤)가 혼미하고 도리에 어긋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으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신을 추대하여 임시로[權] 국사를 보게 하였으므로 놀라고 두려워서 몸 둘 곳이 없었습니다. 황제께서 신에게 권지국사(權知國事)를 허가하시고 이어 국호를

108) 韓尙質 : ?~1400.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중질(仲質), 호는 죽소(竹所). 조선의 개국공신 한상경(韓尙敬)이 그의 아우이고, 세조 때 공신 한명회(韓明澮)가 그의 손자이다.

109) 奏 : 황제에게 올리는 글의 양식인 주문(奏文)을 이른다.

110) 陪臣 : 신하의 신하. 곧 제후의 신하. 보통 제후의 신하인 대부(大夫)가 천자를 대할 때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다.

111) 趙琳 : ?~1408.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 시호는 강소(康昭)이다. 고려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요직을 거치고 은천군(銀川君)에 봉해졌다. 1386년(우왕 12) 한양도원수 겸한양부윤이 되었고, 1388년 밀직사사가 되어 명 나라에 다녀왔다.

112) 咨 : 조선 때 중국과 왕래하던 외교 문서의 하나인 자문(咨文)을 이른다.

113) 欽 : 공경을 표시하기 위해 천자에 관한 일의 앞에 붙이는 말이다.

114) 聖旨 : 중국 황제의 명령을 가리키는 말이다.

115) 節該 : 공문서의 해당 구절을 간략하게 간추려 기재하는 것을 이른다.

116) 星馳 : 서둘러. 급히.

117) 瑤 : 고려 31대 왕인 공민왕(恭愍王, 1330~1374)의 이름이다.

118) 戰栗 : =戰慄. 두려워 떨림.

119) 擅便 : 자기 멋대로 처리함.

120) 天聰 : 황제의 들음.

묻으시니 신은 나라 사람과 함께 감격하고 기쁨이 더욱 간절합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나라를 차지하고 국호를 두는 것은 진실로 소신이 함부로 편한 대로 감행할 수없는 일입니다. 조선과 화령 등의 칭호로 천총(天聰)에 말씀드리니 삼가 황제께서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영조도 말리지 못한 화순옹주(和順翁主)의 사랑

김한신(金漢璽)에게 시집 간 영조의 둘째 딸 화순옹주는 평소 남편과의 사랑이 극진하였다. 이후 남편이 죽자 아버지 영조의 말도 듣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14일 만에 죽었다.

40 下嫁¹²¹⁾于月城尉 金漢璽¹²²⁾하며 始出閤^{한데} 甚得婦道^{하여} 貞柔兼備^{이라} 雅尚儉約^{하고} 服飾不用華侈^{하야} 與都尉¹²³⁾交相敬勉¹²⁴⁾하고, 常以清慎自持¹²⁵⁾하니 人謂賢都尉淑翁主可以儷美云^{이라} 하다 及都尉卒^{하니} 主決意下從^{하고} 勺水不入口^라 上聞之^{하고} 親幸其第^{하야} 勸進糜餌¹²⁶⁾하니 主承命一呷^{하얀} 旋即哇之^{하니} 上知其志不可回^{하고} 嗟歎而還^{이라} 至是絕粒積十四日^에 竟以自盡^{이라} 《王朝實錄》 〈英祖〉

41 嫁 시집갈 가 尉 벼슬 위 璽 조개풀 신 閤 쪽문 함 柔 부드러울 유 備 갖추비 雅 우아할 아 儉 검소할 검 約 묶을 약 服 옷복 飾 꾸밀식 華 화려할 화 侈 사치할 치 敬 경계할 경 勉 힘쓸 면 慎 삼갈 신 淑 맑을 숙 翁 늙은이옹 儷 짝려 勺 구기작 第 집제 糜 죽미 餌 먹을이 呷 마실함 旋 돌선 哇 토할와 嗟 탄식할차 粒 알립 積 쌓을적

옹주는 월성위(月城尉) 김한신(金漢璽)에게 시집가면서 처음으로 대궐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내자의 도리를 깊이 체득하여 정숙하고 유순함을 아울러 갖추었고 검약(儉約)을 숭상하여 의복이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았다. 남편 도위(都尉) 김한신과 서로 권면하며 항상 청렴하고 신중하게 자신을 지키니 사람들이 ‘어진 부마와 착한 옹주(翁主)는 훌륭한 배필이다.’라고 하였다. 남편이 죽자, 옹주가 따라 죽겠다고 결심하고 물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았다. 주상이 옹주의 집에 친히 거둥[幸]하여 미음을 들라고 권하자, 옹주가 명령을 받들어 한 번 마셨다가 바로 토하니 주상도 그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탄식하면서 돌아왔다. 음식을 끊은 지 14일이 된 이날 마침내 목숨이 다하였다.

24. 왕의 초상화가 없는 이유

원상(院相)들이 선왕의 어진이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명종(明宗)에게 건의하였다. 그러자 명종은 선대왕의 유훈에 따라 그리지 않았다.

42 院相¹²⁷⁾洪彦弼¹²⁸⁾、尹仁鏡¹²⁹⁾、柳灌¹³⁰⁾이 同議以啓曰 先王御容이 無世無之^라 成宗、中宗

121) 下嫁 : 지체가 낮은 데로 시집간다는 뜻으로, 공주나 옹주가 신하에게로 시집감.

122) 金漢璽 : 1720~1758. 자는 유보(幼輔)다. 1732년에 영조의 둘째딸 화순옹주(和順翁主)에게 장가들어 월성위(月城尉)에 봉해졌고,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管) 등을 지냈다.

123) 都尉 : 부마도위(駙馬都尉)의 준말로, 남편인 김한신(金漢璽)을 이른다.

124) 敬勉 : 경계하고 힘씀.

125) 自持 : 스스로 지님.

126) 糜餌 : 미음. 죽(粥)보다는 물이 많아 마시기에 편한 음식.

127) 院相 : 왕이 병이 났거나 어린 왕이 즉위하였을 때 국정을 의논하기 위하여 원임(原任)·시임(時任)의 재상들로 하여금 승정원에 주재하게 한 임시관직.

御容¹³¹⁾도 亦皆追畫¹³²⁾니이다 今大行王¹³²⁾도 必無常時畫幀¹³³⁾이니라 請亟追畫¹³³⁾소서하니 答曰 成宗朝宮中에 有能畫人하야 熟視而起草를 畫員仍倣成之이라 然其時親侍人이 言有欠處云이라 하고 中宗御容도 亦有未盡處하나라 今者에 自內로 非無追畫之意나 但大行王臨終할새 有勿畫予容之敎하시니 故今不欲追畫矣라 《王朝實錄》 〈明宗〉

43 彦 선비 언 弼 도울필 鏡 거울경 灌 물덥관 御 어거할어 追 밀추 畫 그림화 幀 족자정 亟 때를극 熟 익힐숙 員 인원원 仍 인항잉 倣 본뜰방 處 처할처 臨 임할임 勿 말물

원상(院相) 홍언필(洪彦弼)·윤인경(尹仁鏡)·유관(柳灌)이 같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선왕의 어용(御容)이 없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성종(成宗)과 중종(中宗)의 어용도 모두 추후에 그렸습니다. 이제 대행왕(大行王)께서도 필시 평상시의 화정(畫幀)이 없을 것이니, 빨리 그리게 하십시오.” 하니, 답하기를, “성종 조에서는 궁중에 그림에 능한 사람이 있어서 익숙하게 보고 기초(起草)를 잡은 것을 화원(畫員)이 그대로 모방해 완성시켰다. 그러나 그때 친히 모신 사람이 보고서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하였고, 중종의 어용 역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제 대권 안으로부터 미루어 그릴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행왕이 임종할 때 ‘내 용모는 그리지 말라.’고 유교(遺敎)하셨기에 지금 그리려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5. 임진왜란이 발발하다

전쟁이 일어나자 충신 정발(鄭撥)과 송상현(宋象賢)은 왜적을 맞서 싸우다 전사하고 이각(李珣)은 달아났다.

44 賊船이 蔽海而來하니 釜山僉使鄭撥¹³⁴⁾은 方獵於絶影島¹³⁵⁾라가 謂爲朝倭라하고 不設備한데 未及還鎭에 而賊已登城이라 撥死於亂兵中이라 翌日에 陷東萊府하고 府使宋象賢¹³⁶⁾死之하며 其妾亦死之라 賊遂分道陷金海、密陽等府하고 兵使李珣¹³⁷⁾이 擁兵先遁이라 《王朝實錄》 〈宣祖〉

45 賊 적적 船 배선 蔽 덮을폐 撥 다스릴발 獵 사냥할엽 絶 끊을절 影 그림자영 設 설치할설 備 갖출비 還 돌아올 鎭 진압할진 亂 어지러울난 翌 다음날익 陷 무너질함 萊 명아주래 妾 첩첩 遂 마침내수 密 뺨뺨할밀 珣 쌍옥각 擁 짙을遁 달아날둔

128) 洪彦弼 : 1476~1549. 갑자사화(甲子士禍)로 유배되었다가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풀려나왔으나,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 일파로 몰려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 우찬성(右贊成)이 되었다가 김안로의 모함으로 파직되었다가 김안로 실각 후 영의정에 이르렀다.

129) 尹仁鏡 : 1476~1548. 중종 때부터 관직을 지내 영의정에 올랐다. 인종이 죽자 원상(院相)으로서 국사를 맡아 처결하고, 명종이 즉위하자 위사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130) 柳灌 : 1484~1545. 어린 명종이 즉위하자 원상(院相)이 되어 서정(庶政)을 총관하였으나, 을사사화(乙巳士禍)로 서천으로 유배되어 가던 도중 과천에서 사사되었다.

131) 御容 : 임금님의 초상.

132) 大行王 : 임금이나 왕비가 죽은 뒤 시호를 아직 올리기 전의 칭호.

133) 畫幀 : =影幀. 사람의 얼굴을 그린 족자.

134) 鄭撥 : 1553~1592. 임진왜란 때 부산진첨절제사로 부산에 상륙한 왜군을 맞아 싸우다 전사했다.

135) 絶影島 : 부산광역시 남쪽 해안에 있는 섬으로, 지금은 영도(影島)로 불린다.

136) 宋象賢 : 1551~1592.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로 재직하였고 왜적을 맞아 싸우다 전사했다. 사후 충렬(忠烈)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부산 동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다.

137) 李珣 : ?~1592.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로 울산 병영에서 부대를 이끌고 동래성을 지원하러 갔던 무관이다.

적의 배가 바다를 덮고서 오니 부산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은 마침 절영도(絶影島)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왜(倭)라 여기고 대비하지 않았는데 미처 진(鎭)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적들이 벌써 성에 올랐다. 발(撥)은 전쟁 중에 전사하였다. 이튿날 동래부(東萊府)가 함락되고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이 죽었으며, 그의 첩도 죽었다. 적은 드디어 길을 나누어 〈진격하여〉 김해(金海)와 밀양(密陽) 등 부(府)를 함락하였는데 병사 이각(李珣)은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달아났다.

26. 인조반정의 시작

이이첨(李爾瞻)은 광해군이 즉위하자 소북파(小北派)를 조정에서 축출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이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식구들을 데리고 달아나다 잡혀 사형 당하였다.

46 反正¹³⁸⁾日에 爾瞻¹³⁹⁾이 盡率(솔)家屬(속)하고 踰南城以逃¹⁴⁰⁾하야 到利川村舍¹⁴¹⁾한데 軍人跟而獲之¹⁴²⁾하다 爾瞻이 始聞申景口¹⁴³⁾等舉義¹⁴⁴⁾하고 景口之妹는 大燁¹⁴⁵⁾之妻也라 先遣大燁妻¹⁴⁶⁾하야 疾入城¹⁴⁷⁾하야 見 景口圖解而不及¹⁴⁸⁾이라 爾瞻이 就金吾¹⁴⁹⁾하야 夜草供辭¹⁵⁰⁾하며 謂同繫人柳希亮曰¹⁵¹⁾ 上이 見此供辭면 必能明我無罪¹⁵²⁾리라하다 《王朝實錄》 〈光海君日記〉

47 爾 너 이瞻 불 첨 盡 다할 진 率 거느릴 솔 屬 이을 속 踰 넘을 유 逃 달아날 도 舍 집 사 跟 발꿈치 근 獲 얻을 획 景 별 경 裕 녀 녀할 유 等 무리 등 舉 들 거 燁 빛날 엽 疾 빠를 질 圖 도모할 도 解 풀 해 就 나아갈 취 供 이바지할 공 繫 맨 계 希 바랄 희 亮 밝을 량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던 날 이이첨(李爾瞻)이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남쪽 성을 넘어 도망가서 이천(利川)의 시골집에 도착했는데, 군인이 뒤따라가서 잡아왔다. 이첨이 처음에 신경유(申景裕) 등이 반정(反正)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경유의 누이는 이대엽(李大燁)의 아내였으므로, 먼저 대엽의 아내를 보내어 빨리 성에 들어가서 경유를 만나보고 석방시켜주기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첨이 의금부(義禁府)에 나아가 밤에 공사(供辭)를 쓰면서 함께 구속된 사람 유희량(柳希亮)에게 말하기를, “상께서 이 공사를 보시면 반드시 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27. 소현세자의 아들 죽다

소현세자의 아들 이석린(李石麟)이 제주로 유배를 갔다가 죽자, 왕이 그를 보양하지 못한 나인

138) 反正 : 623년 이귀, 김유 등 서인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인조반정(仁祖反正)을 이른다.

139) 爾瞻 : 이이첨(李爾瞻, 1560~1623). 선조 때 대북의 영수로서 광해군이 적함함을 주장했다. 광해군 즉위 후 조정에서 소북파를 숙청했다. 영창대군을 죽게 하고 김제남을 사사시켰다. 폐모론을 주장, 인목대비를 유폐시켰다. 인조반정 뒤 참형되었다.

140) 申景裕 : 1581~1633. 광해군 말년 형 신경진과 함께 왕을 축출하려는 모의에 가담하였다.

141) 舉義 :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떨치고 일어나 나라를 정도(正道)로 돌아가게 함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반정(反正)을 이른다.

142) 大燁 : 이대엽(李大燁, 1587~1623). 인조반정으로 대북정권이 몰락하자 아버지 이첨과 동생 이원엽·이홍엽·이익엽이 모두 죽임을 당했으나, 이대엽은 인조의 특명으로 절도에 위리안치되었다가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43) 金吾 : 의금부(義禁府)를 이른다.

144) 供辭 : =供招. 죄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진술한 말.

들의 책임이 크다며 그들을 책임이 크다며 국문(鞫問)한다.

48 昭顯世子¹⁴⁵⁾第二兒石麟¹⁴⁶⁾이 病卒于濟州配所¹⁴⁷⁾라 牧使以聞하니 上下敎曰 濟州兒相繼死亡하니 其間情狀이 殊極兇慘이라 配所內人等을 令禁府拿來嚴鞫¹⁴⁸⁾하라하고 仍遣內官하야 護喪¹⁴⁹⁾以來라 又遣內人與下人하야 使之護養¹⁵⁰⁾第三兒하다 及拿致¹⁵¹⁾內人玉眞、愛英、異生等하다 玉眞이 供招¹⁵²⁾以爲 兩兒之死는 由於土疾이니 非由於保養之不謹이라한데 刑訊¹⁵³⁾累次而斃라 愛英、異生, 既受刑한데 上以其罪輕於玉眞이라하야 命釋之하다 《王朝實錄》 〈仁祖〉

49 昭 밝을 소 顯 드러날 현 麟 기린 린 濟 건널 제 배 配 짝 배 繼 이을 계 殊 죽일 수 兇 흉악할 흉 慘 참혹할 참 禁 금할 금 府 곳집 부 拿 납을 나 嚴 엄할 엄 鞫 국문할 국 仍 인할 잉 內 안나내 護 보호할 호 喪 죽을 상 遣 보낼 건 養 기를 양 異 다를 이 招 부를 초 謹 삼갈 근 刑 형벌 형 訊 물을 신 斃 넘어질 폐 罪 죄죄 輕 가벼울 경 釋 풀석

소현세자(昭顯世子)의 둘째 아들 이석린(李石麟)이 제주 유배지에서 병으로 죽었다. 목사(牧使)가 아뢰니, 왕께 하교하기를, “제주에 있는 아이들이 잇따라 죽었으니, 그 사이의 정상이 매우 흉측스럽다. 유배지의 나인(內人)들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와서 엄히 국문(鞫問)하게 하라.” 하고, 이어 내관(內官)을 보내어 호상(護喪)하여 오게 했다. 또 나인과 하인을 보내어 셋째 아들을 호양(護養)하게 하였다. 나인 옥진(玉眞)·애영(愛英)·이생(異生) 등을 잡아왔다. 옥진이 공초하기를, “두 아이가 죽은 것은 풍토병 때문이지 보양을 삼가지 않은 탓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는데, 누차 형신(刑訊)을 받다가 죽었다. 애영과 이생도 형신을 받았는데, 상이 그들의 죄는 옥진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28. 왕비를 폐하다

숙종은 장희빈(張禧嬪)을 좋아하여 인현왕후 민씨를 멀리하였다. 와중에 장희빈의 아들에 대해 원자(元子)로 호칭하는 문제가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이어져 서인들이 쫓겨나고 남인들이 집권하면서 그녀 역시 서인으로 폐하고 안국동(安國洞) 사가(私家)로 내쳐졌다.

50 廢王妃閔氏¹⁵⁴⁾爲庶人時에 上이 下備忘記曰 予觀兩朝廢妃¹⁵⁵⁾時故事컨대 尹氏所失은 只在妬忌한데 而罪狀既著하니 則成廟¹⁵⁶⁾爲宗社하야 深憂遠慮하야 斷然廢黜¹⁵⁷⁾이라 況今日閔氏負犯하고 浮於尹氏하고 而兼之以尹氏所無之行하며 做出先王先后¹⁵⁸⁾之敎하야 得罪於宗社者乎아 其令禮

145) 昭顯世子 : 조선의 제16대 왕 인조(仁祖)의 맏아들이다.

146) 石麟 : 이석린(李石麟, 1640~1648). 조선의 왕족종실로, 인조 임금의 적장남(嫡長男)이었던 소현세자의 둘째 아들 경완군(慶完君)이다.

147) 配所 : 귀양 가 있는 유배지.

148) 鞫 : 국문(鞫問)의 준말로, 국왕의 명령으로 중죄인을 국청(鞫廳)에서 신문함.

149) 護喪 : 초상을 치르는 모든 일을 보살핌.

150) 護養 : 보살피어 기를.

151) 拿致 : 죄인을 강제로 잡아 옴.

152) 供招 : =供辭.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일.

153) 刑訊 : 죄인을 형벌 도구로 고문하면서 신문하여 자백을 받아냄.

154) 閔氏 :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 조선 제19대 숙종의 계비. 기사환국(己巳換局) 때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가 갑술옥사(甲戌獄事)로 다시 왕후로 복위했다.

155) 兩朝廢妃 : 성종조(成宗朝)의 폐비 윤씨(尹氏)와 중종조(中宗朝)의 폐비 신씨(愼氏)를 이른다.

156) 成廟 : 조선 제9대 임금 성종(成宗)을 달리 이르는 말.

157) 廢黜 : 관직을 떼어내고 내침.

158) 先王先妃 : 이전 시대의 왕과 왕비.

官으로 廢爲庶人하야 歸之私第¹⁵⁹⁾하니 告廟頒敎하며 奪其父母封爵¹⁶⁰⁾等事는 一依舊例하야 卽速舉行하라 《王朝實錄》 〈肅宗〉

51 廢 폐할 폐 閔 위문할 민 庶 못서 備 갖출비 忘 잊을망 觀 불관 妬 샘할 투 忌 꺼릴기 既 이미기 著 드러날 저 廟 사당 모 深 깊을 심 慮 근심려 斷 끊을 단 黜 물리칠출 負 질부 犯 범할범 浮 지나칠부 兼 겸할겸 倣 지을주=作 第 집 제 頒 나눌 반 奪 빼앗을탈 封 봉할봉 爵 벼슬작 依 의지할의 舊 옛구 例 법식례 舉 들거

왕비 민씨(閔氏)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을 때, 임금이 비망기를 내리기를, “내가 양조(兩朝)의 폐비(廢妃)할 때의 고사를 보니, 윤씨(尹氏)가 잘못된 것은 다만 투기에 있었는데, 죄상(罪狀)이 이미 드러나자 성묘(成廟)께서 종사를 위해 깊이 근심하고 먼 앞날을 생각하시어 단연코 폐출(廢黜)하셨다. 더욱이 오늘날 민씨는 허물을 지고 범한 것이 윤씨보다 더하고, 윤씨에게 없었던 행동까지 겸하였으며, 선왕(先王)과 선비(先妃)의 하교를 만들어 내어 종사에 죄를 얻었다.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아 사제(私第)로 돌려보내니, 종묘에 고하고 교서(敎書)를 반포하며 그 부모의 봉작(封爵)을 빼앗는 등의 일은 한결같이 옛날의 사례에 의하여 곧바로 속히 거행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29. 사도세자(思悼世子) 뒤주에서 죽다

영조(英祖)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이선(李愼)을 뒤주에 넣어서 죽인다. 이후 장례를 치르는 방법, 상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 것까지 꼼꼼히 챙기고 사도세자(思悼世子)라는 시호를 내린다.

52 悼世子¹⁶¹⁾薨逝¹⁶²⁾하다 敎曰 既聞此報之後니 豈不思近卅載¹⁶³⁾父子之恩乎아 顧世孫¹⁶⁴⁾之心하고 諒大臣之意하야 只復其號하고 而兼諡以名曰思悼世子라하다 服制月數雖存이나 除成服¹⁶⁵⁾하고 以烏帽¹⁶⁶⁾黻袍¹⁶⁷⁾百官淺淡服¹⁶⁸⁾終月하라 世孫은 雖終三年이나 進見(현)時葬後則淡服하라하다 又 敎曰 今既處分하니 嬪宮¹⁶⁹⁾與孝純一¹⁷⁰⁾也니 不可用舊印이라 賜其號曰惠嬪하야 一體賜玉印하고 朝廷庭候¹⁷¹⁾하라하다 《王朝實錄》 〈英祖〉

53 悼 슬퍼할도 薨 죽을 흥 逝 죽을서 報 보고할보 卅 서른삼 載 해 재=年 顧 돌아볼고 諒 헤아릴량 兼 겸할겸 諡 시호시 帽 모자모 黻 검푸르죽죽할참 袍 핫옷포 淺 얇을 천 淡 물을담 葬 장사지낼장 嬪 아내빈 印 도장인 賜 줄사 庭 뜰정 候 안부후

159) 私第 : 개인 소유의 집.

160) 封爵 : 왕이 신하에게 내리던 봉토(封土)와 작위(爵位).

161) 思悼世子 : 1735~1762. 이름은 이선(李愼). 자는 윤관(允寬). 아버지 영조와 갈등 끝에 만 28살의 젊은 나이로 뒤주에 갇혀 죽었다.

162) 薨逝 : 왕이나 왕족, 귀족 등의 죽음을 높여 이르는 말.

163) 卅載 : 30년.

164) 世孫 : 왕세자의 말아들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왕위에 오르기 전의 정조(正祖).

165) 成服 : 초상이 난 뒤에 상제(喪制)와 복인들이 처음으로 상복을 입음.

166) 烏帽 : 검은 모자.

167) 黻袍 : 제사 지낼 때에 왕이 입는 열은 청색 옷.

168) 淺淡服 : 국상이나 일반상의 3년 상을 치르고 100일간 입는 옥색의 제복.

169) 嬪宮 : 조선시대에 왕세자빈을 지칭하거나 왕세자빈이 거처하던 곳을 지칭한 용어.

170) 孝純 : 사도세자의 형, 진종(眞宗)의 비(妃)인 효순왕후(孝純王后)를 이른다.

171) 庭候 : 아랫사람이 웃어른에게 대하여, 뜰아래에 나아가서 안부를 물어 살피는 일.

사도세자(思悼世子)가 죽었다. 전교(傳敎)하여 말하기를,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혜와 의리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世孫)의 마음을 고려하고 대신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를 회복하고, 아울러 시호(諡號)를 지어 사도세자(思悼世子)라 한다. 복제(服制)의 개월 수가 비록 있으나 성복(成服)은 벗고 오모(烏帽)·참포(黻袍)를 착용하고 백관은 천담복(淺淡服)으로 한 달에 마치도록 하라. 세손은 비록 3년을 마쳐야 하지만 나아가 벌 때와 장례 후에는 담복(淡服)으로 하라.”고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이제 이미 처분하였으니 빈궁(嬪宮)은 효순왕후(孝純王后)과 동일하게 되었으니, 옛 도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혜빈(惠嬪)이란 호를 내려 일체로 옥도장을 내리고, 조정에서 정후(庭候)하라.”고 하였다

30. 정조, 왕위에 오르다

일반적으로 왕의 즉위식은 선왕(先王)이 죽고 나서 6일이 지난 후에 거행한다. 시신을 모신 빈전의 동쪽에 왕세자가 머물 천막을 치고 유언장과 옥새 등을 마련하고 새로 등극하는 왕에게 건넬 준비를 한다. 왕세자는 상복을 면복(冕服)으로 갈아입고 빈전의 뜰로 나아가 옥새를 받아 영의정과 좌의정에게 전한 후 용상에 오르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다.

54 午時¹⁷²⁾에 大臣等請受寶¹⁷³⁾하니 王固辭不獲¹⁷⁴⁾하야 具冕服扶¹⁷⁵⁾하여 詣殯殿¹⁷⁴⁾門外褥位¹⁷⁵⁾하야 行四拜禮¹⁷⁶⁾라 領議政金尙喆¹⁷⁷⁾은 奉遺敎¹⁷⁸⁾하고 左議政申晦¹⁷⁸⁾는 奉大寶¹⁷⁹⁾以進¹⁸⁰⁾하니 王涕泣強受¹⁸¹⁾하고 復行四拜禮¹⁸²⁾하고 出資政門¹⁸⁰⁾乘輿¹⁸¹⁾하고 詣崇政門¹⁸²⁾降輿¹⁸³⁾이라 宗親文武百官이 分東西序立¹⁸⁴⁾하야 侍衛如儀¹⁸⁵⁾하니 王嗚咽¹⁸⁶⁾不忍陞座¹⁸⁷⁾하다 大臣以下가 又力請¹⁸⁸⁾하니 王號哭曰 此座는 卽先王所御之座也 니 豈意今日予當此座乎¹⁸⁹⁾이라하니 大臣以日已晚¹⁹⁰⁾하야 縷縷¹⁸³⁾仰請¹⁹¹⁾하니 王遂陞御座¹⁹²⁾한데 百官行禮¹⁹³⁾하니 釋冕反喪服¹⁹⁴⁾이라 《王朝實錄》 〈正祖〉

55 寶 보배 보 固 굳을고 辭 사양할사 獲 얻을획 冕 면류관면 殯 염할빈 殿 집전 褥 요욕 晦 그믐회 涕 눈물체 泣 울음 强 강할강 乘 탈승 輿 수레여 嗚 울명 咽 목멜열 陞 오를승 座 자리좌 哭 울곡 縷 실루 釋 풀식 服 옷복

오시(午時)에 대신들이 어보(御寶) 받기를 청하니 왕이 굳게 사양하다가 되지 않자, 면복(冕服)을 갖추고 부축을 받으며 빈전(殯殿)의 문밖 옥위(褥位)로 나아가 사배례(四拜禮)를 거행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은 유교(遺敎)를 받들고 좌의정 신회(申晦)는 대보(大寶)를 받들어 올리니, 왕이 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받고서 다시 사배례를 거행하였고, 자정문(資政門)으로 나

172) 午時 :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의 시간.

173) 寶 : 왕의 도장인 어보(御寶)를 이른다.

174) 殯殿 : 인산(因山) 때까지 임금 또는 왕비의 관을 두는 전각.

175) 褥位 : 요를 깔아 만들어 놓은 임금의 자리.

176) 四拜禮 : 왕이나 문묘의 공자에 대하여 네 번 절하던 의례.

177) 金尙喆 : 1712~1791. 우의정 때에 조선의 문물·제도를 부문별로 망라한 문헌의 필요성을 느껴 왕에게 건의하여 찬집청(撰集廳)을 두게 하였고,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를 편찬하였다.

178) 申晦 : 1706~?. 자는 여근(汝根). 예조판서를 지냈다. 영조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일 때 동조하였다. 정조 즉위 후 이에 동조한 죄로 홍주(洪州)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179) 大寶 : 왕의 도장인 어보(御寶).

180) 資政門 : 경희궁(慶熙宮)의 북쪽 문.

181) 乘輿 : 임금이 타는 수레.

182) 崇政門 : 경희궁(慶熙宮) 정전(正殿)의 정문.

183) 縷縷 : =屢屢·累累. 누누이.

와 승여(乘輿)를 타고 승정문(崇政門)에 이르러 승여(乘輿)에서 내리었다. 종친(宗親)들과 문무백관(文武百官)이 동서로 나뉘어 차례대로 서서 의식대로 시위하니, 왕이 올먹이며 차마 어좌(御座)에 오르지 못하였다. 대신 이하가 또한 힘써 청하자 왕이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이 어좌는 곧 선왕께서 앉으시던 어좌이다. 어찌 오늘 내가 이 어좌를 마주 대할 줄을 생각이나 했겠는가?”라고 하였다. 대신들이 해가 이미 기울어진 것을 들어 누누이 우러러 청하자, 왕이 드디어 어좌에 오르자 백관들이 예를 행하니 면복을 벗고 도로 상복을 입었다.

31. 현종(顯宗)의 병환

조선 18대 왕인 현종(顯宗)은 평생 병치레를 하던 약골이었다. 아버지 효종은 죽기 바로 직전 까지도 학질로 고생하는 세자를 문병하였다. 때문에 즉위할 때도 현종은 와병 중이었다.

56 行藥院¹⁸⁴入診¹⁸⁵于重熙堂¹⁸⁶하다 都提調權敦仁¹⁸⁷曰 臣이 於正月初一日에 仁政殿承候後하고 今始登筵¹⁸⁸하야 仰瞻天顏¹⁸⁹하니 則玉色¹⁹⁰瘦敗하고 色澤燥澁¹⁹¹하시니 下情不勝惓惓¹⁹¹矣라 近日則寢睡之節何如오 上曰 今番所苦는 始以滯氣爲祟하야 別無他證이라 近日以來로 滯氣頗減하고 而寢睡도 亦稍勝矣라 《王朝實錄》 〈憲宗〉

57 藥 약약 診 불진 熙 빛날 희 都 도읍도 提 끌제 調 고를조 權 저울추 권 敦 도타올 돈 筵 대자리 연 瞻 볼참 瘦 파리할수 澤 못택 燥 마를조 澁 땀을삼 勝 이길승 寢 잠잘침 睡 잘수 滯 막힐체 崇 빌미수 證 증세증 頗 자못파 減 덜감 稍 점점초

중희당(重熙堂)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하였다. 도제조(都提調) 권돈인(權敦仁)이 말하기를, “신이 정월 초하룻날에 인정전(仁政殿)에서 문안한 뒤로 이제야 비로소 등연(登筵)하여 천안(天顏)을 우러러보니 옥색(玉色)이 여위고 윤택이 꺼칠하시니 아랫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사이 주무시는 일이 어떠하십니까?”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번에 괴로운 것은 처음부터 체기(滯氣)가 빌미가 되었고 별로 다른 증세는 없었다. 근래 이후로 체기의 증세가 자못 줄고 잠도 조금씩 나아졌다.”라고 하였다.

32. 이이첨(李爾瞻)의 변고

이이첨은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자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살해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폐모하는 등 온갖 짓을 자행하였다.

184) 藥院 : 조선시대 대궐 안의 의약을 맡아보던 기관.

185) 入診 : 의원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진찰함.

186) 重熙堂 : 창덕궁(昌德宮) 인정전(仁政殿) 동쪽에 있던 건물로, 정조 6년에 지어졌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187) 權敦仁 : 1783~1859. 영의정 등을 지냈다. 원상(院相)으로 잠시 국정을 맡았다. 철종 때 경의군(敬義君)을 추존하고 위패를 영녕전으로 옮길 때, 현종을 먼저 모시도록 주장하다 파직되어 죽었다.

188) 登筵 : 중신이나 대신이 일이 있어 임금께 나아가 뵈.

189) 天顏 : 임금의 얼굴.

190) 玉色 : 임금의 낮빛.

191) 惓惓 :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모양.

58 王若曰¹⁹² 惟我國家는 列聖¹⁹³相承하야 家法最正이라 以孝爲理하야 重熙累洽之化가 至昭敬王¹⁹⁴而極矣라 昊天¹⁹⁵不弔¹⁹⁶하야 遂值否運이라 越自十數年來로 賊臣爾瞻¹⁹⁷이 熒惑¹⁹⁸君心하야 圖竊國柄하고 仍構母子¹⁹⁹之際하야 竟成彝倫²⁰⁰之變하며 幽閉別宮하야 僇辱備至하니 秦昭²⁰¹、晉惠²⁰²之禍도 不啻過之라 況乃倍天朝²⁰³父母之恩하고 滅吾東禮義之風하니 三綱掃地을 胡可忍言이리오 至如侈慾之無厭²⁰⁴하고 政刑之紊亂하야 民窮財盡하며 外潰內訌하고 足以亡國殄祀이라 猶是薄物細故²⁰⁵은 悉具慈教할새니 無容贅舉라 《承政院日記》 〈仁祖〉

59 累 쌓일루洽 윤택할흠 昊 하늘호 弔 돌볼조 值 만날치 否 막힐비 爾 너이瞻 불침 熒 등불형 圖 도모할도 竊 훔칠질 柄 자루병 構 엮을구 彝 떼뺏할이 變 변할변 幽 그윽할유 閉 닫을폐 僇 욱보일록 辱 욱될욕 備 모두비=俱 啻 뿐시 滅 멸할멸 綱 버리강 掃 쓸소 胡 어찌호 侈 사치할치 慾 욱심욕 厭 싫어할염 紊 어지러울문 亂 어지러울란 窮 궁할궁 財 재물재 潰 무너질괴 訌 무너질홍 殄 다할진 薄 얇을박 悉 다실 贅 군더더기 贅 거론할거

왕은 다음과 같이 이르기를, “오직 우리 나라는 열성(列聖)이 서로 이어서 가법(家法)이 가장 바르다. 효로 다스려 그 빛나고 흡족한 교화가 소경왕(昭敬王)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는데, 하늘이 돌보아주지 않아 드디어 비색(否塞)한 운을 만나게 되었다. 지난 10여 년 이래로 적신(賊臣) 이이첨(李爾瞻)이 임금의 마음을 현혹시켜 국권을 제 멋대로 했고, 모자간을 이간시켜 끝내 윤리의 변고를 이루어 모후(母后)를 별궁에 유폐하여 온갖 곤욕이 모두 이르니 진(秦) 나라 소양왕(昭襄王)과 진(晉) 나라 혜공(惠公)의 재앙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부모와 같은 중국 조정[天朝]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 동방의 예의 있는 풍속을 무너뜨렸으니, 삼강(三綱)이 땅을 쓴 듯 없어진 것을 어찌 차마 말할 수 있겠는가? 사치와 욱심이 끝이 없고 형벌이 문란하여 백성들은 곤궁하고 재정은 고갈되며 지방과 조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나라를 망치고 제사를 끊어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와 같은 소소한 일들은 자전(慈殿)의 교서에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33. 역적 궁비(宮婢)의 조사를 청합니다.

한사득(韓師得)이 역적 궁비에 관하여 조사를 청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제대로 처리가

192) 王若曰 : 교문(敎文)과 윤음(綸音)은 임금이 직접 지은 경우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신하가 대신 지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글의 첫머리를 ‘왕약왈(王若曰)’의 형식으로 시작된다.

193) 列聖 : 역대 임금의 이름을 이르는 말.

194) 昭敬王 : 조선 14대 왕인 선조(宣祖)를 이른다.

195) 昊天 : 하늘

196) 不弔 : 돌보아 주지 않다.

197) 李爾瞻 : 1560~1623. 선조 때 대북의 영수로서 광해군이 적합함을 주장했다. 광해군 즉위 후 조정에서 소북파를 숙청하였다. 폐모론(廢母論)을 주장하여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유폐시켰다. 인조반정(仁祖反正) 뒤 참형되었다.

198) 熒惑 : 미혹하다.

199) 母子 : 광해군(光海君)과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이른다.

200) 彝倫 : 사람이 지켜야할 당연한 도리.

201) 秦昭 : B.C. 325~251. 전국시대 진(秦) 나라의 제28대 군주로, 무왕을 이어 왕위에 오르더니 범수(范雎)의 달래는 말에 의심을 사서 태후(太后)를 폐위시켰던 사건이 있다.

202) 晉惠 : B.C. 650~638. 진(晉) 나라 20대 군주이다. 진현공(B.C. 676~651 재위)과 견용(犬戎) 차녀의 아들로 본명은 이오(夷吾)이다.

203) 天朝 : 제후의 나라에서 천자의 나라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중국을 이른다.

204) 無厭 : 끝이 없음.

205) 薄物細故 : 그다지 크지 않은 자잘한 일.

되지 않고 그 와중에 효종(孝宗)이 승하하자 36일 동안 공무를 중지하고 조의를 표하던 공제(公除)로 인하여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계사를 올렸다.

60 正言韓師得²⁰⁶啓曰 逆婢請查之啓^{하야} 閱歲爭執²⁰⁷이로되 而天討莫行^{하고} 弓劍遽遺²⁰⁸하니 臣子之攀號痛裂을 尤復^{(부)如何}이오 雖當嚴廬²⁰⁹哀疚²¹⁰之日이나 宜卽抹血²¹¹齊籲^{한데} 而循例姑停²¹²으로 果涉率^{(솔)爾}²¹³하니 物議²¹⁴之非斥을 烏得免乎리오 再昨諸臺之引避²¹⁵也로되 臣慘遭天感²¹⁶하고 且重患寒感²¹⁷하야 未得聯名^{하고} 今始來避^{하니} 所失尤大라 請命遞斥臣職^{하소서}하니 答曰 勿辭^{하라}하다 《承政院日記》 〈英祖〉

61

62 逆 거스를 역 婢 계집종비 閱 보낼 열 歲 해세 爭 다들 쟁 執 잡을 집 劍 칼검 遽 갑자기 거 遺 남길 유 攀 부여잡을 반 號 부르짖을호 痛 아플 통 裂 찢을 렬 廬 오두막집 려 疚 고질병 구 抹 바를 말 籲 부르짖을유 循 따를 순 停 멈출 정 涉 건널 섭 率 거느릴 솔 斥 배척할 척 烏 어찌오 避 피할피 遭 만날 조 感 근심할척 寒 찰한 感 느낄 감 聯 이을 연 遞 갈마들 체

63

정언(正言) 한사득(韓師得)이 아뢰기를, “역적 궁비(宮婢)에 대해 조사하기를 요청하는 계사(啓辭)를 올려 해를 넘기면서 논쟁을 하였는데도 하늘의 주벌이 행해지지 않고 선왕께서 갑자기 승하하셨으니 신하들의 울부짖고 애통한 마음을 더욱이 다시 어찌하겠습니까? 비록 엄중한 여막(廬幕)에서 슬퍼해야 할 날이기는 하지만 의당 곧바로 피눈물을 닦으며 일제히 호소하여야 하는데 규례에 따라 우선 정계(停啓)하는 것으로 경솔하게 처리하였으니 여론의 비난을 어찌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 대간들이 인피(引避)하였는데 신은 참담하게도 어린 자식의 상을 당한데다가 또 거듭 감기에 걸려 연명(聯名)하지 못하고 이제야 와서 인피하니 잘못이 더욱 큼니다. 신의 직임을 체차하도록 명하소서.”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34. 과거시험을 들여 온 쌍기(雙冀)

206) 韓師得 : 1689~1766. 정언으로 재임 중 봉당의 폐단을 논하는 소를 올려 내심 탕평책(蕩平策)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던 영조로부터 신임을 얻었다. 한성판윤(漢城判尹) 등을 지냈다.

207) 爭執 : 논쟁하다.

208) 弓劍遽遺 : 임금의 승하를 이름. 중국 상고(上古)에 황제(黃帝)가 용을 타고 승천(昇天)할 때에 따라 타지 못한 소신(小臣)들이 용의 수염에 매달렸다가 수염이 뽑혀 떨어지고 황제의 활이 떨어지니, 백성들이 그 활을 안고 울부짖었다는 고사(故事)와, 황제가 스스로 죽을 날을 택하고 여러 신하들과 헤어지자 교산(橋山)에 장사지냈는데, 산이 무너지면서 텅 빈 관(棺)이 나타났고 그 속에는 오로지 황제의 칼과 신만 남아 있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209) 嚴廬 : 임금이 국상(國喪)을 당하였을 때 거처하는 여막(廬幕).

210) 哀疚 : =哀苦, 슬픔과 괴로움.

211) 抹血 : 피눈물을 닦다.

212) 停 : 정계(停啓)의 준말로, 임금에게 보고하는 죄인 문건인 전계(傳啓)에서 죄인의 이름을 빼 버리던 일.

213) 率爾 : 경솔한 모양.

214) 物議 : 의론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못 사람들의 평판이나 비난을 이르는 말.

215) 引避 : 공동으로 책임지고 일을 피하는 일.

216) 天感 : 어린자식이 죽음.

217) 寒感 : 감기.

중국인 쌍기(雙冀)의 건의로 최초로 과거제도가 창설되어 인재들이 선발되는 장점도 있었지만 지나친 형벌과 왕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잘못에 관해 이제현(李齊賢)이 논평하였다.

64 李齊賢²¹⁸⁾贊曰 光宗之用雙冀²¹⁹⁾은 可謂立賢無方²²⁰⁾乎이라 冀果賢也면 豈不能納君於善하고 不使至於信讒濫刑耶아 若其設科取士면 有以見光宗之雅으로 有用文化俗之意라 而冀將順以成其美하니 不可謂無補也라 惟其倡以浮華²²¹⁾之文하니 後世不勝其弊云이라하다 《高麗史》〈光宗〉

65 贊 도을 찬 雙 쌍쌍 冀 바랄 기 納 바칠 납 讒 참소할 참 濫 퍼질 람 補 보탬보 倡 인도할 창 浮 뜰부 華 화려할 화 勝 이길 승 弊 폐할 폐

이제현(李齊賢)이 논평하기를, “광종(光宗)이 쌍기(雙冀)를 등용한 것은 어진사람을 등용하는데 신분은 따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쌍기가 과연 어진사람이었다면 어찌 임금을 착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참소를 믿어 형벌을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는가? 과거를 설치하여 선비를 선발한 것 같은 일이라면 광종이 높은 뜻으로 문치(文治)로 풍속을 교화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쌍기가 그의 뜻에 따라 그 훌륭한 일을 이루려 했으니 보탬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내실 없이〉 겉만 화려한 문장만을 창도하였으니 후세에 〈끼친〉 폐해를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겠다.”라고 하였다.

35. 왕이 사랑한 여자

고려 명종(明宗)은 사람됨이 유순하고 겁이 많아 국정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사랑하는 궁녀가 죽자 목 놓아 울었다.

66 內嬖²²²⁾明春死어늘 王哀戀不已하고 失聲號哭이라 太后驚駭하야 寬譬²²³⁾之曰 雖是情鍾²²⁴⁾이나 然不可使聞於重房²²⁵⁾也라 然猶嗚咽不能止라 遂親製悼亡詩하고 令宗親和進하야 以自慰하다 王天資孱弱²²⁶⁾한데 加以屢更變故로 動輒驚懼라 凡軍國機務는 皆牽制武臣하며 至如聲色도 猶不敢自專이라 及賊臣誅夷하야 始得溺受牀第²²⁷⁾한데 內嬖專房²²⁸⁾者五人으로 尤寵幸者는 唯純珠、明春二人이라 《高麗史》〈明宗〉

218) 李齊賢 : 1287~1367. 문하시중(門下侍中)이라는 고려 최고의 관직까지 올랐으며,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더불어 해박한 식견을 갖추었다.

219) 雙冀 : 본래 중국 후주(後周) 사람으로 고려로 귀화한 인물이다. 광종에게 건의해 과거제도를 창설하였다.

220) 立賢無方 : 《맹자(孟子)》〈이루 하(離婁下)〉에, “탕왕은 중도를 잡고 행하였으며, 유능한 인재는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등용하였다.[湯 執中 立賢無方]”라는 구절이 있다.

221) 浮華 : 실속이 없고 겉말 화려함.

222) 內嬖 : 임금이 총애하는 여자.

223) 寬譬 : 달래고 위로함.

224) 情鍾 : 감정이 쏠림.

225) 重房 : 이군육위(二軍六衛)의 상장군과 대장군 등이 모여 군사(軍事)를 의논하던 곳으로 정치의 중심 기관이었다.

226) 孱弱 : 가냘프고 약함.

227) 牀第 : 규방(閨房)의 부녀를 말함.

228) 專房 : 사랑을 독점함.

67 嬖 사랑 폐戀 사모할 연驚 놀랄 경駭 놀랄 해寬 너그러운 관譬 비유할 비鍾 모일 종咽 목구멍 인製 지을 제悼 슬퍼할 도慰 위로할 위房 쇠잔할 잔屢 여러 루輒 문득첩懼 두려울 구幾 기미 기務 힘쓸 무牽 이끌 견誅 벨 주夷 죽 일 이牀 평상상第 평상자寵 사랑할 총幸 사랑할 행純 순수할 순珠 구슬 주

왕이 총애하던 <궁녀> 명춘(明春)이 죽자 왕이 슬픔을 멈추지 않고 목이 메일 정도로 통곡하였다. 놀란 태후가 왕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아무리 애정을 쏟으셨더라도 중방(重房)에 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지만 왕은 오열을 그치지 못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친히 애도하는 시를 지어 종친들로 하여금 화답하게 함으로써 위안을 삼았다. 왕은 천성이 나약한 데다가 여러 차례 변란까지 겪은 탓에 걸핏하면[重] 깜짝 놀라고 겁을 내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은 모조리 무신들의 견제를 받았으며 음악이나 여색에 관한 일 같은 것도 오히려 감히 제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였다. 역신들이 처형당하고서야 비로소 여색[牀第]을 탐닉하게 되었는데 왕의 총애를 독점하던 궁녀는 다섯 명으로 그 중 가장 총애를 받은 사람은 순주(純珠)와 명춘 두 명이었다.

36. 서희(徐熙)의 답판

서희는 8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 온 거란의 소손녕(蕭遜寧)과 거란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고구려의 옛 땅이라는 논리로 거란을 물리친다.

68 熙曰 非也라我國는 卽高句麗之舊也라故號高麗라하고 都平壤이라 若論地界컨대 上國之東京도 皆在我境한데 何得謂之侵蝕乎아 且鴨綠江內外도 亦我境內어늘 今女眞盜據其間하며 頑黠變詐로 道途梗澁²²⁹⁾하니 甚於涉海라 朝聘²³⁰⁾之不通은 女眞之故也니 若令逐女眞하고 還我舊地하야 築城堡通道路면 則敢不修聘가 將軍如以臣言로 達之天聰이면 豈不哀納가 辭氣慷慨하야 遜寧²³¹⁾도 知不可强하고 遂具以聞하니 契丹²³²⁾帝曰 高麗既請和하니 宜罷兵하라하다 《高麗史》 〈徐熙〉

69 舊 옛 구壤 땅양 侵 침범할 침蝕 좀먹을 식鴨 오리 압盜 훔칠 도據 의거할 거頑 완고할 완黠 악할 힐變 변할 변詐 속일 사梗 대개 경澁 걸끄러울 삼涉 건널 섭聘 찾아갈 빙築 쌓을 축堡 작을 성보納 들일 납慷慨 강개할 강慨 분개할 개遜 겸손할 손寧 편안할 념罷 파할 파

서희(徐熙)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는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하였다. 만일 국경 문제를 따지자면 상국(上國)인 <요(遼)나라의> 동경(東京)도 모조리 우리 땅에 <속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말하는가? 게다가 압록강(鴨綠江)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女眞)이 그 사이를 훔쳐 근거지로 삼고 있으며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요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다. 조빙(朝聘)이 통하지 않는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조빙을

229) 梗澁 : 막혀서 통하지 않음.

230) 朝聘 : 조현(朝見)과 교빙(交聘)을 아울러 이르는 말. 조(朝)는 인군(人君)을 알현한다는 뜻이고, 빙(聘)은 이웃의 교빙을 의미함.

231) 遜寧 : ?~?. 거란(契丹)이 세운 요(遼)의 장수로 993년 군대를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였으나 서희(徐熙)와의 답판으로 강화를 맺은 뒤 철군하였다.

232) 契丹 : 통구스와 몽고의 혼혈족으로 알려진 동호계(東胡系)의 한 종족 이름으로, ‘거란’이라고 읽는다.

잘 수행하지 않았는가? 장군이 만일 신의 말을 천자에게 전달해 준다면 천자께서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그 말투가 강개하여 소손녕(蕭遜寧)도 역지를 부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자신의> 조정에 구체적으로 보고했다. 그러자 거란의 황제도 고려가 이미 강화를 요청해왔으니 군사 행동을 중지하라고 지시하였다.

37. 황금을 돌같이 여긴 최영장군

1 初瑩年十六에 父臨終戒之曰 汝當見金如石라하니 瑩佩服하야 不事產業하고 居第甚隘陋로되 處之怡然이라 服食儉素하야 屢至空匱나 見乘肥衣輕者면 不啻如犬豕라 雖身都將相하고 久典兵權이로되 關節²³³⁾不到하니 世服其清이라 務持大體하고 不究細理하야 終身將兵이나 麾下士卒所識面者는 不過數十이라 鞍馬²³⁴⁾間엔 往往賦詠爲樂한데 一夕에 與諸相飲聯句라 慶復興²³⁵⁾唱云 天是古天이로되 人不古이라하니 瑩對云 月爲明月이로되 相無明이라하다 見人不義면 必深惡痛斥하다 《高麗史》〈崔瑩〉

70 瑩 밝을 영 臨 임할 임 佩 찰 패 服 옷복 第 집제 隘 좁을 애 陋 좁을 루 怡 기쁠 이 屢 자주루 匱 한 귀 乘 탈승 肥 살찔 비 豕 췌 都 거느릴 도 典 맡을 전 關 빗장관 節 마디 절 務 힘쓸 무 鞍 안장 안 賦 글 지을 부 聯 이을 연 慶 경사경

일찍이 최영이 16세 때에 부친이 임종하면서 훈계하기를, “너는 마땅히 황금 보기를 돌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최영이 마음에 새겨서 재산을 <늘리는 것을> 일삼지 않고 거처하는 집이 매우 좁고 누추하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의복과 음식이 검소하여 자주 쌀독이 텅 비었지만 살찐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면 개나 돼지처럼 여길 뿐만이 아니었다. 비록 몸은 장수와 재상을 거느리고 오랫동안 병권(兵權)을 맡고 있었지만 뇌물이 이르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의 청렴함에 탄복하였다. 중요한 일은 힘을 쓰고 사소한 일은 파고들지 않았으며, 종신토록 군사를 거느렸으나 휘하 사졸들 가운데 <그의> 얼굴을 아는 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 전쟁터에 있는 동안에도 때때로 글을 짓고 읊는 것을 즐겼는데, 어느 날 저녁에 여러 재상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구(詩句)를 주고받았다. 경복흥(慶復興)이 읊기를, “하늘은 옛 하늘이되 사람은 옛 사람이 아니로다.”라고 하니 최영이 대구(對句)하기를, “달은 밝은데 재상은 밝지 못하구나.”라고 하였다. 남의 불의를 보면 반드시 깊이 미워하고 몹시 배척하였다.

38. 을지문덕의 글 솜씨

71 文德이 遣仲文詩曰 神策究天文하고 妙算窮地理라 戰勝功既高하니 知足願云止하라하니 仲文答書諭之하다 文德이 又遣使詐降(항)하고 請於述曰 若旋師者면 當奉王하야 朝行在所²³⁶⁾리라 述見士卒疲弊하야 不可復(부)戰하고 又平壤城險固하야 難以猝拔하고 遂因其詐而還하야 爲方陣²³⁷⁾而

233) 關節 : 뇌물.

234) 鞍馬 : 전쟁.

235) 慶復興 : ?~1380. 고려 공민왕 때의 정치가. 초명은 천흥(千興), 시호는 정렬공(貞烈公). 우(祐)를 세우려던 이인임(李仁任) 등에 반대하고 왕의 존친을 세울 것을 역설하다가 모략에 빠져 청주에 유배된 후 사망했다.

236) 行在所 : 왕이 상주하는 궁궐을 떠나 멀리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무르는 별궁.

237) 方陣 : 병사들을 사각형으로 배치하여 친 진(陣)

行이라 文德出軍하야 四面擊之하니 述等且戰且行이라 至薩水하야 軍半濟한데 文德進軍하야 擊其後軍하고 殺右屯衛將軍辛世雄이라 於是에 諸軍俱潰를 不可禁止이라 九軍將士奔還한데 一日一夜에 至鴨水하니 行四百五十里라 初度遼엔 九軍三十萬五千人이어늘 及還至遼東城엔 唯二千七百人이라 《三國史記》 〈乙支文德〉

72 策 대책 책 妙 묘할 묘 算 셀 산 窮 다할 궁 戰 싸울 전 止 그칠 지 諭 깨우칠 유 詐 속일 사 降 항복할 항 旋 돌 선 疲 지칠 피 弊 해질 폐 險 험할 험 固 견고할 고 猝 갑자기 줄 拔 뺄 발 擊 칠 격 薩 보살 살 濟 건널 제 屯 진 칠 둔 衛 지킬 위 辛 매울 신 俱 함께 구 潰 무너질 깨 奔 달릴 본 還 돌아올 환 鴨 오리 압 遼 멀 료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우중문(于仲文)에게 시를 보내 말하기를, “신기한 계책은 천문(天文)에 통달했고, 기묘한 계책은 지리(地理)를 알았도다. 전쟁을 이겨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한 줄 알았으면 그치기를 바란다.”라고 하니 우중문이 답장을 보냈다. 을지문덕이 또 사자를 보내 거짓 항복하고 우문술(宇文述)에게 청하기를, “만일 군사를 돌린다면 마땅히 왕을 모시고 행재소(行在所)로 가서 뵙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문술은 군사들이 피곤하고 지쳐서 더 싸울 수 없는데다가, 평양성이 험하고 견고하여 금방 함락시키기에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그 거짓 항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돌아가 방진(方陣)을 만들어 행군하였다. 을지문덕이 군사를 내어 사방에서 공격하니 우문술 등이 한편으로 싸우고 다른 한편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이 살수(薩水)에 이르러 군사가 절반쯤 강을 건너자 을지문덕이 군사를 몰아 그들의 후군을 공격하여 우둔위(右屯衛) 장군 신세웅(辛世雄)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대가 한꺼번에 허물어져 건잡을 수가 없었다. 9군의 장군과 군사들이 흩어져 돌아갔는데, 그들은 하루 낮 하루 밤 사이에 압록강에 도착하니 4백 50리를 행군한 것이었다. 처음에 요수(遼水)를 건너 올 때 그들의 9군이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에 돌아갔을 때는 다만 2천7백 명뿐이었다.

39. 죽기를 각오한 관창

신라의 화랑 관창(官昌)은 어린나이에도 백제군과 싸우다 사로잡혀 목이 베어져 신라군에게 돌려보내진다. 이에 고무된 신라군은 모두 결사의 각오로 싸워 마침내 백제군을 대파하였다.

73 至黃山之野하야 兩兵相對어늘 父品日謂曰 爾는 雖幼年有志氣하니 今日是立功名하고 取富貴之時니 其可無勇乎아 官昌曰 唯타하야는 卽上馬橫槍하고 直擣敵陣하야 馳殺數人이나 而彼衆我寡하야 爲賊所虜이라 生致百濟元帥階伯²³⁸⁾前하니 階伯俾脫胄하다 愛其少且勇하야 不忍加害하고 乃嘆曰 新羅多奇士라 少年도 尙如此한데 況壯士乎아하고 乃許生還이라 官昌曰 向吾入賊中이나 不能斬將奪旗하니 深所恨也라 再入必能成功하리라하고 以手掬井水하야 飲訖하고 再突賊陳疾鬪라 階伯擒斬首하야 繫馬鞍送之라 品日이 執其首하고 袖拭血曰 吾兒面目²³⁹⁾如生라 能死於王事하니 無所悔矣라하니 三軍見之하고 慷慨有立志하야 鼓噪²⁴⁰⁾進擊하야 百濟大敗하다 大王贈位級飡하야 以禮葬之하다 《三國史記》 〈官昌〉

238) 階伯 : ?~660. 백제 말기의 장군이다. 660년 김유신(金庾信)과 소정방(蘇定方)의 5만여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요충지인 탄현(炭峴)으로 진격해 오자, 결사대 5,000명을 뽑아 황산벌에 나가 맞이하여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239) 面目 : 모습이나 용모.

240) 鼓噪 : =鼓譟. 북을 치며 떠들어 댐.

74 爾 너 이 幼 어릴 유 取 취할 취 富 부유할 부 唯 빨리 대답할 유 橫 가로 횡 槍 창 창 擣 공격할 도 敵 적 적 殺 죽 일 살 寡 적을 과 虜 포로로 致 보낼 치 階 섬돌 계 脫 벗을 탈 胄 투구 주 害 해칠 해 嘆 탄식할 탄=歎 羅 그물 라 況 하물며 황 斬 벨 참 攀 매넬 건 旗 깃발 기 掬 움길 국 訖 마칠 흘 突 갑자기 돌 疾 빠를 질 鬪 싸울 투 擒 사로잡을 금 繫 벨 계 鞍 안장 안 袖 소매 수 拭 닦을 식 慷 강개할 강 慨 분개할 개 鼓 북 고 噪 떠들썩할 조 擊 칠 격 級 등급 급 飡 먹을 잔 葬 장사지낼 장

향산벌에 이르러 양쪽 군대가 서로 대치하자 아버지 품일(品日)이 말하기를, “네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뜻과 기개가 있으니, 오늘이 바로 공명을 세우고 부귀를 취할 때이니 어찌 용기가 없어야 되겠느냐?” 하였다. 관창이 “예” 하고는 곧바로 말에 올라 창을 빗겨들고 적진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말을 달리면서 몇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적의 수는 많고 우리 편이 수가 적어서 적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산채로 백제의 원수(元帥) 계백(階伯)의 앞에 끌려가니, 계백이 관창의 투구를 벗게 하였다. 그이 나이가 어린데도 용감한 것을 아껴 차마 해를 가하지 못하고 이에 탄식하기를 “신라에는 뛰어난 병사가 많구나. 소년도 오히려 이리한데 하물며 장사(壯士)는 어떻겠는가!”라고 하고는 곧바로 살려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관창이 말하기를, “지난번 내가 적지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적장의 목을 베지 못하고 깃발도 꺾지 못하였으니 깊이 한스럽구나. 다시 적진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우물물을 움켜 마시고는 다시 적진으로 돌진하여 민첩하게 싸웠으나 계백에게 잡혀 머리를 베어 말안장에 매어 보내었다. 품일이 관창의 그의 머리를 잡고 소매로 피를 닦으며 말하기를, “우리 아이의 모습이 살아 있는 것 같구나. 그렇지만 왕실의 일에 죽었으니 후회가 없다.”고 하였다. 삼군(三軍)이 이를 보고 비분강개(悲憤慷慨)하며 뜻을 세워 북을 요란하게 치며 진격하니 백제가 크게 패하였다. 대왕이 관창에게 급찬(級飡)의 벼슬을 주고 예로서 그를 장례지냈다.

40. 숲에 몸을 던져 죽다

박제상(朴堤上)은 박혁거세의 후손으로, 왜국(倭國)으로 가서 신라를 배반하고 도망쳐왔다고 속인 다음 눌지왕의 아우 미사흔(未斯欣)을 빼돌려 신라로 도망치게 하였다. 왜왕(倭王)은 그를 목도(木島)로 유배 보냈다가 곧바로 불에 태운 뒤 목 베었다.

75 於是에 堤上²⁴¹⁾은 勸未斯欣²⁴²⁾潛歸本國하니 未斯欣曰 僕奉將軍如父한데 豈可獨歸리오하니 堤上曰 若二人俱發이면 則恐謀不成이라하니 未斯欣이 抱堤上項하고 泣辭而歸하다 堤上이 獨眠 室內晏起하니 欲使未斯欣遠行이라 諸人問하되 將軍何起之晚고하니 答曰 前日行舟勞困하야 不得夙興이라하다 及出하니 知未斯欣之逃하고 遂縛堤上하야 行舡追之나 適煙霧晦冥하야 望不及焉이라 歸堤上於王所러니 則流於木島라가 未幾²⁴³⁾에 使人以薪火燒爛支體하고 然後斬之라 大王聞之哀慟하야 追贈大阿飡하며 厚賜其家라 使未斯欣으로 娶其堤上之第二女爲妻하야 以報之하다 《三國史記》〈朴堤上〉

241) 堤上 : 박제상(朴堤上, 363~419). 신라의 눌지왕 때의 충신. 고구려와 일본으로 건너가 볼모로 잡혀 있던 왕제들을 고국으로 탈출시켰으나 왜국 군에게 잡혀 유배되었다 살해당했다.

242) 未斯欣 : ?~433. 신라 상대의 왕족. 내물마립간의 셋째아들이다. 그는 실성마립간의 보복인사에 의하여 402년 일본에 볼모로 가게 되었다. 실성은 내물마립간 때 고구려에 볼모로 가서 10년간의 억류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실성마립간으로 즉위하였다.

243) 未幾 : 얼마 되지 않는 동안. 얼마 후.

76 堤 독제 欣 기뻐할흔 潛 잠길 잠 歸 돌아갈 귀 僕 나복 謀 꾀할모 抱 안을포 泣 울음 眠 잠잘면 晏 늦을안 晚 늦을만 勞 피로할노 困 괴로울곤 夙 일찍숙 興 일어날흥 逃 달아날도 縛 묶을박 缸 배선 適 마침적 煙 연기연 霧 안개무 晦 그믐회 冥 어두울몽 薪 땔나무신 燒 태울소 爛 문드러질란 斬 벨참 慟 서럽게울통 賜 줄사 厚 두터울후 娶 장가들취 妻 아내처 報 갚을보

이에 제상(堤上)은 미사흔(未斯欣)에게 몰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니 미사흔이 말하기를, “제가 장군을 아버지처럼 받들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돌아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제상이 말하기를,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떠나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합니다.”라고 하니, 미사흔이 제상의 목을 껴안고 울며 하직하고 귀국하였다. 제상은 방 안에서 혼자 자다가 늦게야 일어나니, 미사흔이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 사람이 묻기를 “장군은 어찌 이처럼 늦게 일어납니까?”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어제 배를 타서 몸이 노곤하여 일찍 일어날 수 없다.”라고 대답하였다. <제상> 밖으로 나오자, 미사흔이 도망한 것을 알고 드디어 제상을 결박하고, 배를 달려 추격하였으나 마침 연기 같은 안개가 끼어 어두워져 멀리까지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제상을 왜왕의 처소로 돌려보냈더니, 그를 목도(木島)로 유배 보내고 나서 얼마 후 사람을 시켜 쑤에 불을 질러 온몸을 태우고 목을 베었다. 대왕이 이 소식을 듣고 애통해 하고, 대아찬(大阿飡)으로 추증하였으며, 그 가족에게 후히 물품을 내리었다. 그리고 미사흔으로 하여금 제상의 둘째 딸을 맞아 아내로 삼게 하여 보답하였다.

41. 12살에 유학을 떠난 최치원

868년 최치원(崔致遠)은 12세의 어린 나이로 중국 당 나라에 유학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가 그에게 “10년 동안에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격려하였다.

77 字孤雲이고 王京沙梁部²⁴⁴)人也라 史傳泯滅하야 不知其世系라 致遠²⁴⁵)은 少精敏好學라 至年十二하야 將隨海舶하고 入唐求學²⁴⁶)할새 其父謂曰 十年不第면 卽非吾子也니 行矣勉之하라 致遠至唐하야 追師學問無怠라 乾符²⁴⁷)元年甲午에 禮部侍郎裴瓚下一舉²⁴⁸)及第하야 調授宣州溧水縣尉하고 考績²⁴⁹)爲承務郎侍御史內供奉 賜紫金魚袋하다 時黃巢²⁵⁰)叛하니 高駢²⁵¹)이 爲

244) 沙梁部 : 신라 때 둔 육부(六部)의 하나. 유리왕 9년에 육촌(六村)을 육부(六部)로 바꿀 때 ‘돌산(突山)’·‘고허촌(高墟村)’을 고친 것이다.

245) 致遠 : 최치원(崔致遠, 857~?). 9세기 통일신라 말기의 학자이다. 중국 당 나라에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지어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으며, 신라로 돌아온 뒤에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려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다. 유교·불교·도교에 모두 이해가 깊었다.

246) 求學 : 학문을 탐구함.

247) 乾符 : 중국 당 나라 희종(僖宗)의 연호(874~880).

248) 一舉 : 한 번 일을 벌임.

249) 考績 : 관원의 근무 성적이나 공적이나 과실 등을 고찰하고 살펴 포폄(褒貶)하는 인사행정을 말한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번에 걸쳐 실시하였다.

250) 黃巢 : ?~884. 중국 당 나라 말기의 대농민반란의 수령. 왕선지(王仙芝)의 반란에 호응하여 군사를 일으킨 후 전국 각지를 전전(轉戰)하면서 가는 곳마다 관군을 격파하고, 장안(長安)에 입성하여 스스로 황제위에 올랐으나, 관군의 반격으로 자결하였다.

251) 高駢 : ?~887. 당 나라 유주(幽州) 사람. 자는 천리(千里)다. 고숭문(高崇文)의 손자다. 대대로 금군장령(禁軍將領)을 지내 자주 병사를 이끌고 서남쪽에 주둔했다. 희종(僖宗) 때 황소(黃巢)의 반란을 진압했다. 이때 중국에 있던 최치원(崔致遠)이 그를 위해 쓴 격문(檄文)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이 유명하다.

諸道行營兵馬都統以討之^{한데} 辟²⁵²⁾致遠爲從事하고 以委書記至任^{한데} 其表狀書啓가 傳之之
 今이라 《三國史記》〈崔致遠〉

78 孤 외로울고 梁 들보랑 泯 망할 민 滅 멸할 멸 精 정밀할 정 敏 재빠를 민 隨 따를 수 舶 큰 배 박 第 급제할 제 勉 힘
 쓸 면 怠 게으를 태 符 부신부 瓚 제기 찬 舉 들거 授 줄 수을 溧 강 이름 올 慰 위로할 위 積 쌓을 적 務 힘쓸 무 御
 어거할 어 紫 자줏빛 자 袋 자루 대 巢 집 소 駢 나란히 할 병 辟 부를 베크 委 맡길 위

〈최치원(崔致遠)의〉 자는 고운(孤雲)이고 서울 사랑부(沙梁部) 사람이다. 역사로 전하는 것이
 사라져 그의 세계(世系)를 알 수 없다. 치원은 어려서부터 정밀하고 민첩하였으며, 학문을 좋
 아하였다. 나이 12세가 되어 장차 선박을 따라 당 나라에 들어가 공부를 하려 할 때 그 아버
 지가 말하기를, “십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내 아들이 아니니 힘써 공부하거라!”고
 하였다. 치원이 당 나라에 도착해서 스승을 좇아 학문을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건부
 (乾符) 원년 갑오년(甲午年)에 예부시랑(禮部侍郎) 배찬(裴瓚) 아래에서 한 번에 합격하여 선주
 (宣州) 울수현 위(溧水縣慰)에 임명되었고 고적(考績)을 거쳐 승무랑(承務郎) 시어사내공봉(侍
 御史內供奉) 자금어대(紫金魚袋)를 하사받았다. 그 무렵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병
 (高駢)이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되어 이를 토벌하였는데, 치원을 불러 종사관
 (從事官)을 삼고 서기의 임무를 맡겼다. 그가 지은 표(表)·장(狀)·서(書)·계(啓)가 지금까지
 전한다.

42. 금 상자 위에 흰 닭이 울다

65년 어느 날 탈해왕(脫解王)이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의 수풀 속에서 닭울음소리를
 듣고 금함 속에 담긴 사내아이를 발견한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금상자[金函]에서 나
 왔다고 하여 성을 ‘김(金)’이라고 하였으며, 이때부터 시림을 계림(鷄林)이라 하였는데, 그
 가 바로 경주김씨의 시조인 김알지(金閼智)다.

79 九年春三月에 王夜聞金城²⁵³⁾西始林²⁵⁴⁾樹間에 有鷄鳴聲이라 遲明²⁵⁵⁾遣瓠公視之^{한데} 有金色
 小櫃掛樹枝하고 白鷄鳴於其下라 瓠公還告하니 王使人取櫃하야 開之하니 有小男兒在其中^{한데} 姿
 容奇偉라 上喜謂左右曰 此豈非天遣我以令胤乎^{이라}하고 乃收養之라 及長하야 聰明多智略하니
 乃名閼智²⁵⁶⁾라하다 以其出於金櫃하야 姓金氏이라 改始林名鷄林^{이라}하고 因以爲國號하다 《三國
 史記》〈金閼智〉

80 樹 나무수 鷄 닭계 鳴 울명 聲 소리 성 遲 더딜지 遣 보낼 건 瓠 표주박 호 櫃 상자독 掛 걸 과 還 돌아올 환 姿 맨
 시 자 容 모습용 胤 만아들 윤 聰 귀 밝을 총 閼 가로막을 알

9년 봄 3월, 왕이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의 나무 사이에서 닭울음소리가 있는 〈것을
 들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호공(瓠公)을 보내 어찌된 일인지를 알아보게 하였다. 호공

252) 辟 : 辟舉의 준말로, ‘불러서 채용하다’는 뜻이다.

253) 金城 : 신라 시조 혁거세왕(赫居世王) 21년에 경주에 쌓은 왕성(王城)을 이른다.

254) 始林 : 신라 초기 경주 지방의 지명으로, 탈해왕 9년 3월에 계림(鷄林)으로 고쳤다.

255) 遲明 : 날이 밝기를 기다림. 날이 셀 무렵.

256) 閼智 : 경주 김씨의 시조로, 탈해왕 9년(65)에 경주의 서쪽 시림(始林)의 나무 끝에 걸린 금궤
 (金匱)에서 태어났으며 금궤에서 유래하여 성(姓)을 김(金)이라 하였다.

이 가보니 <그곳에는> 금 빛나는 작은 상자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달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이를 보고하니, 왕은 사람을 보내 그 상자를 가져와 열게 하였다.
 그 속에는 어린 사내아이가 들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자태와 용모가 뛰어났다. 왕이 기뻐하며
 측근들에게 “이 아이는 어찌 하늘이 나에게 아들로 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고, 그 아
 이를 거두어 길렀다. 아이는 자라면서 총명하고 지략이 뛰어나니, 그의 이름을 알지(闕智)라고
 하였다. 그는 금빛이 나는 상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을 김씨(金氏)라고 하였다. 시림을 고
 쳐 계림(雞林)이라 부르고, 이를 국호로 삼았다.

43. 간첩에게 유인된 김유신

백석(白石)은 고구려에서 김유신을 해칠 목적으로 신라에 파견했던 간첩으로, 김유신을 고구
 려로 유인하려다가 일이 발각되어 붙잡혀 죽었다.

81 庾信公²⁵⁷⁾은 以眞平王十七年乙卯生^{한데} 稟精七曜²⁵⁸⁾이라 故背有七星文^{하고} 又多神異^라 年
 至十八壬申^에 修劍得術爲國仙²⁵⁹⁾이라 時有白石者^{한데} 不知其所自來나 屬(속)^(속)於徒中有年²⁶⁰⁾이라
 郎以伐麗濟之事로 日夜深謀^{한데} 白石이 知其謀^{하고} 告於郎曰 僕請與公으로 密先探於彼이라 然
 後에 圖之何如오하니 郎喜^{하고} 親率白石夜出行이라가 方憩於峴上^{한데} 有二女隨郎而行하야 至骨
 火川²⁶¹⁾留宿^{한데} 又有一女忽然而至라 公與三娘子로 喜話之時에 娘等以美菓之로 郎受而啖之하
 고 心諾相許하야 乃說(설)其情이라 娘等告云 公之所言는 已聞命矣라 願公謝白石而共入林中이면
 更陳情實이라 乃與具入하니 娘等便(변)現神形曰 我等奈(나)林、穴禮、骨火等三所護國之神이
 라 今敵國之人誘郎引之^{로되} 郎不知而進途하니 我欲留郎而至此矣^라하고 言訖而隱이라 《三國遺
 事》〈金庾信〉

82 稟 줄 품 精 정미할 정 曜 빛날 요 異 다름 이 修 닦을 수 劍 칼 검 術 피술 屬 속할 속 伐 칠 벌 麗 고을 러 濟 건널
 제 謀 꾀할 모 僕 나 북 密 엄밀할 밀 探 찾을 탐 圖 도모할 도 率 거느릴 솔 憩 쉴 게 峴 고개 현 隨 따를 수 留 머무를 류
 宿 잘 숙 菓 과자 과 啖 먹을 담 諾 허락할 낙 謝 물러날 사 奈 어찌 나 穴 구멍 혈 護 보호할 호 敵 적 적 誘 끌 유 途 길
 도 訖 마칠 홀 隱 숨을 은

유신공(庾信公)은 진평왕(眞平王) 17년 을묘(乙卯)에 났는데, 칠요(七曜)의 정기를 타고났기 때
 문에 등에 일곱 개의 별무늬가 있었고 또 신기한 일이 많았다. 나이 18세가 되는 임신(壬申)
 년에 검술을 익혀 국선(國仙)이 되었다. 이때 백석(白石)이란 자가 있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화랑도의 무리에 소속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이때 유신랑(庾信郎)은 고구려와
 백제를 치려고 밤낮으로 깊은 의논을 하고 있었는데 백석이 그 계획을 알고 유신랑에게 고하
 기를, “내가 공과 함께 엄밀히 먼저 저들을 정탐한 뒤에 일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 유신랑은 기뻐하여 친히 백석을 데리고 밤에 떠났다. 고개 위에서 쉬고 있는데 두
 여인이 유신을 따라와서 골화천(骨火川)에 도착하여 자게 되었는데 또 한 여자가 갑자기 이르
 렀다. 공이 세 여인과 함께 기쁘게 이야기할 때 여인들은 맛있는 과자를 <주니> 유신랑은 그

257) 庾信公 : 김유신(金庾信, 595~673). 멸망한 가야 왕손으로, 삼국시대 신라의 삼국통일에 중추적
 인 역할을 맡은 장수다.

258) 七曜 : 일(日)·월(月)과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의 다섯별을 이른다.

259) 國仙 : 신라시대 화랑도(花郎徒) 중에서 국왕이 특별히 임명한 자를 이른다.

260) 有年 : 여러 해.

261) 骨火川 : 지금의 경상북도 영천시(永川市) 지역에 있던 시내의 이름이다.

것을 받아먹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들을 믿게 되어 자기의 실정(實情)을 말하였다. 여인들이 말하기를, “공이 말하는 바는 이미 들었습니다. 원컨대 공께서는 백석을 떼어 놓고 우리들과 함께 저 숲속으로 들어가면 실정을 다시 말씀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들과 함께 들어가니 여인들은 문득 신(神)의 모습을 드러내어 말하기를, “우리들은 나림(奈林)·혈례(穴禮)·골화(骨火) 등 세 곳의 호국신이오. 지금 적국 사람이 유신량을 유인해 가는데도 유신량은 모르고 따라가므로, 우리는 유신량을 만류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었소.”라고 하며 말을 마치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44.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과 단군의 탄생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桓雄)이 인간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 곰인 웅녀(熊女)와 혼인하여 단군(檀君)을 낳았다.

2 古記云 昔有桓因²⁶²庶子²⁶³桓雄²⁶⁴이 數(삭)意天下하야 貪求人世라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太伯²⁶⁵하니 可以弘益人間하야 乃授天符印²⁶⁶三箇하며 遣往理之라 雄이 率徒三千하고 降(강)於太伯山頂의 神壇樹²⁶⁷下하니 謂之神市²⁶⁸라하고 是謂桓雄天王也라하다 將風伯、雨師、雲師²⁶⁹하고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하고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고 在世理化라 時有一熊一虎하야 同穴而居한데 常祈于神雄願化爲人이라 時神遣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하고 不見日光百日이면 便得人形이라 熊虎得而食之하며 忌三七日하야 熊得女身이나 虎不能忌하야 而不得人身이라 熊女者는 無與爲婚라 故每於壇樹下에 呪願有孕라 雄乃假化而婚之하고 孕生子하니 號曰 壇君王儉이라하다 《三國遺事》 〈古朝鮮〉

83 庶 무리 서 桓 군셀 환 雄 수컷 웅 數 자주삭 弘 넓을 흥 益 더할 익 授 줄수 符 부절부 印 도장인 遣 보낼 건 率 거느릴 술 徒 무리 도 降 내려올 강 頂 정수리 정 壇 단 단 樹 나무수 伯 만백 師 스승사 穀 곡식곡 熊 곰웅 穴 구멍혈 祈 빌기 願 원할원 靈 신령령 艾 쑥애 炷 자루주 蒜 마늘산 爾 너 이 輩 무리배 忌 꺼릴기 婚 혼인할 혼 孕 아이벨 嬰 假 임시가 號 부를 호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桓因) 서자(庶子)인 환웅(桓雄)이 천하에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탐하여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人間)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이에 천부인(天符印) 3개를 주며 가서 다스리도록 하였다. 환웅은 무리 3000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곳을 신시(神市)라 하고 그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하였다. 그는 풍백(風伯)·우사(雨師)·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생명·질병·형벌·선악을 주관하고, 모두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면서 세상에 머물며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이때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변해서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

262) 桓因 : 단군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신.

263) 庶子 : 적자(嫡子)가 아닌 여러 아들 중의 한 사람.

264) 桓雄 : 천상을 지배하는 하늘의 임금인 환인의 아들.

265) 三危太伯 : 환인(桓因)이 환웅(桓雄)의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의지실현을 하기 위해 선택한 장소로 정확한 지역은 알려져 있지 않다.

266) 天符印 : 단군의 아버지 환웅(桓雄)이 환인(桓因)으로부터 받아 내려왔다는 것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따르면 청동으로 만든 검·거울·방울로 추측된다.

267) 神壇樹 : 환웅(桓雄)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성한 나무.

268) 神市 : 고조선 건국 이전의 도읍지.

269) 風伯、雨師、雲師 : 바람과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

다. 이때 신[환웅]이 영험한 쑥 한줌과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형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그것을> 받아먹고 금기한 지 21일 만에 곰은 여자의 몸을 얻었지만, 호랑이는 금기하지 못해서 사람의 몸을 얻지 못하였다. 여자가 된 곰[熊女]은 <그와> 더불어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녀와 혼인하였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檀君王儉)이라 하였다.

45. 호랑이도 물리친 강감찬

강감찬(姜邯贊)이 한성부(漢城府) 판관(判官)이 되어 사람들이 호랑이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는 말을 듣고는 중으로 변한 호랑이를 꾸짖어 물리쳤다.

84 高麗侍中姜邯贊²⁷⁰⁾이 爲漢陽判官^{한데} 時府境多虎^{하야} 吏民多爲所噬^{하야} 府尹患之^{하니} 邯贊謂尹曰 此甚易^(이)耳^라 待三四日^{이면} 吾可除之^{하리라} 하고 書紙爲貼屬^(속)吏云^{호되} 明晨汝往北洞 ^{이면} 當有老僧蹲踞石上^{하리니} 汝可招來^{하라} 吏如言而去^{하니} 果有一老僧^{한데} 衣藍縷²⁷¹⁾ 戴白布巾^{으로} 犯霜曉在石上^라가 見府貼隨吏而至^{하고} 拜謁判官叩頭而已^라 邯贊勅僧曰 汝는 雖禽獸^{이나} 亦是有靈之物^{이니} 何害人至此^오 與汝約五日^{하리니} 其率^(솔)醜類徙于他境^{하라} 不然疆弩勁矢로 盡殺乃已^라하니 僧叩頭謝罪^{하다} 尹大噓曰 判官誤耶^라 僧豈虎乎^{아라}하니 邯贊曰 汝可化形^{하라}하니 僧咆哮²⁷²⁾一聲^{하며} 化一大虎^{하야} 仰攀欄楹^{하야} 聲振數里^{하니} 尹魄喪²⁷³⁾仆地^{이라} 邯贊曰 可止^라하니 虎翻然²⁷⁴⁾復其形^{하야} 頂禮²⁷⁵⁾而去^라 《慵齋叢話 3》

85 邯 땅이를 감 贊 도을 찬 境 지경 경 噬 깨물서 貼 붙을 첩 晨 새벽 신 蹲 웅크릴 준 踞 웅크릴 거 招 부를 초 藍 쪽 람 =縷 실 루 戴 일 대 曉 새벽 호 隨 따를 수 謁 아뢰 알 勅 타이를 칩 禽 날짐승 금 靈 신령 령 率 거느릴 솔 醜 추할 추 徙 옮길 사 疆 지경 강 弩 쇠뇌 노 勁 굳셀 경 叩 조아릴 고 謝 사례할 사 噓 크게 웃을 각 咆 으르렁 거릴 포 哮 으르렁 거릴 호 攀 더위잡을 반 欄 난간 란 楹 기둥 영 振 떨칠 진 魄 넋 백 仆 엎드릴 부 翻 뒤칠 번 頂 정수리 정

고려 시중(侍中) 강감찬(姜邯贊)이 한양판관(漢陽判官)이 되었는데, 그때에 부(府)의 경내에 호랑이가 많아 관리와 백성이 많이 물려 부윤(府尹)이 걱정을 하자, 강감찬이 부윤에게 말하기를, “이는 매우 쉬운 일이다. 3,4일만 기다리면 내가 제거하겠다.”라고 하고는 종이에 글을 써서 첩(貼)을 만들고는 아전에게 부탁하기를 “내일 새벽에 네가 북동(北洞)에 가면 마땅히 늙은 중이 바위 위에 앉아 있을 것이니, 네가 불려서 데리고 오너라!”고 하였다. 아전이 그가 말한 대로 가보니, 과연 한 늙은 중이 있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흰 베로 만든 두건을 쓰고 새벽 서리를 무릅쓰고 바위 위에 있다가 부(府)에서 보낸 첩을 보고 아전을 따라와서 판관을 배알 하고는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강감찬이 중에게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비록 금수이지만 또한 영(靈)이 있는 동물인데, 어찌 이 지경에까지 사람을 해치느냐! 너와 5일을 약속할 터이

270) 姜邯贊 : 948~1031. 고려의 문관으로, 요 나라의 3차 침입을 격퇴하고 천수현개국남(天水縣開國男)에 봉해졌다. 1030년에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다.

271) 藍縷 : =檻縷. 낚고 헤진 옷.

272) 咆哮 :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음. 또는 울부짖는 소리.

273) 魄喪 : 넋을 잃어버림.

274) 翻然 : 갑자기 바뀜.

275) 頂禮 : 이마를 땅에 대고 가장 공경하는 뜻을 나타내는 절.

니, 추한 무리를 이끌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강한 활과 화살로 모두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니, 중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다. 부윤이 크게 웃으며 말하기를, “판관은 잘못 본 것입니다. 중이 어찌 호랑이겠습니까.”라고 하니, 강감찬이 늙은 중을 보고, “너는 <본래의 모양으로> 모습을 바꾸어라!”고 하니, 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한 마리의 큰 호랑이로 변하여 난간과 기둥을 기어오르니, 그 소리가 몇 리 밖에까지 울렸으며 부윤은 낮을 잃고 땅에 엎드렸다. 강감찬이, “그만하라!”고 하니, 호랑이는 전 모양으로 돌아가서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물러갔다.

46. 일본의 왕이 된 부부

신라의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가 일본으로 건너가니 신라의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세오가 보낸 비단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

東海濱에 有延烏郎、細烏女夫婦而居라 一日은 延烏가 歸海採藻한데 忽有一巖러니 負歸日本라 國人이 見之曰 此非常人也라하고 乃立爲王이라 細烏는 怪夫不來하야 歸尋之나 見夫脫鞋하고 亦上其巖하니 巖亦負歸如前이라 其國人驚訝하야 奏獻於王하야 夫婦相會하야 立爲貴妃니 是時新羅日月無光이라 日者²⁷⁶⁾이 奏云 日月之精이 降在我國한데 今去日本이라 故致斯怪라하니 王遣使求二人하니 延烏曰 我到此國은 天使然也니 今何歸乎아 雖然이나 朕之妃有所織細綃하니 以此祭天이면 可矣라하고 仍賜其綃하니 使人來奏하고 依其言而祭之라 然後에 日月如舊 라 藏其綃於御庫爲國寶하고 名其庫爲貴妃庫라하고 祭天所名迎日懸 又都祈野라 《三國遺事》〈延烏郎 細烏女〉

86 濱 불가빈 延 끌연 採 켈 채 藻 말조 巖 바위 암 怪 기이할괴 尋 찾을심 鞋 신혜 驚 놀랄경 訝 놀랄아 獻 드릴
현 羅 새그물라 精 정미할정 致 이를치 朕 나 짐 綃 비단초 賜 줄사 祭 제사제 舊 예구 藏 감출장 御 어저할어 寶
보배보 庫 창고고 懸 매달 현 都 모두도 祈 빌기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延烏郎)과 세오녀(細烏女) 부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연오가 바다로 가서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위 하나가 나타나더니,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곳>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보통사람이 아니다.”라고 하고는 <그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바닷가에> 나가서 그를 찾아보니 남편이 벗어놓은 신이 있었다. <그> 역시 바위 위에 올라갔더니 바위가 또 것처럼 <세오녀를> 싣고 <일본으로>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히 여겨 왕에게 아뢰어 부부가 서로 만나 그녀를 세워 귀비(貴妃)로 삼았다. 이 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이 사라졌다. 일관(日官)이 왕에게 아뢰기를,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 나라에 내려와 있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두 사람을 찾으니 연오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그렇게 한 일인데, 지금 어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짐의 비(妃)가 짠 고운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비단을 주니, 사신이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고 그의 말대로 하늘에 제사를 드린 뒤에 해와 달이 전과 같아졌다. <이에>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보관하고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貴妃庫)라고 하고, 하늘에 제사지낸 곳을 영일현(迎日懸), 또는 도기야(都祈野)라고 하였다.

276) 日者 : 천문(天文)을 맡아보던 일관(日官)을 이른다.

47. 적장과 몸을 던진 논개

진주성이 왜적에게 짓밟힐 때 관기로 적장을 유인하여 남강(南江)에 빠져 산화하였다. 1620년 경에 그가 순국한 바위에 의암(義巖)이라고 새겨 그의 넋을 기렸다.

87 論介²⁷⁷⁾者는 晉州官妓也라 當萬曆癸巳之歲에 金千鎰²⁷⁸⁾倡義師하고 入據晉州以抗倭이나 城陷軍散하고 人民俱死이라 論介는 凝粧靚服하야 立于臺石樓下峭巖之前이라 其下萬丈으로 直入波心이라 群倭이 見而悅之나 皆莫敢近로되 獨一倭이 挺然²⁷⁹⁾直進하니 論介笑而迎之하여 倭將誘而引之려니 論介가 遂抱持其倭하고 投于潭하야 俱死하다 壬辰之亂에 官妓之倭遇不見辱而死者은 不可勝記라 非止一論介오 而多失其名이라 彼官妓淫媚也니 不可以貞烈稱한데 而視死如歸하고 不汚於賊이라 渠亦聖化中一物로 不背國從賊은 無他오 忠而已矣니 欽歎哀哉라 《於野談》

88 妓 기생 기 曆 책력 력 鎰 중량 일 倡 인도할 창 義 의로울 의 據 의거할 거 抗 막을 항 倭 왜국 외 陷 빠질 함 散 흩어 질 산 凝 응길 응 粧 꾸밀 장 靚 단장할 정 服 옷복 臺 우거질 축 峭 가파를 초 群 무리 군 悅 기쁠 열 挺 뻗 정 笑 웃을 소 迎 맞이할 영 誘 필유引 이끌 인 抱 안을 포 持 가질 지 潭 깊을 담 遇 만날 우 辱 욕될 욕 勝 이길 승 淫 음란할 음 媚 몸 파는 기생 창 汚 더러울 오 渠 그 거 賊 적 적 猗 한탄하는 소리 의 歎 어조사여

논개(論介)는 진주의 관기(官妓)다. 만력(萬曆) 계사년(癸巳年)에 김천일(金千鎰)이 거느리는 의병이 진주성(晉州城)으로 들어가 그곳을 근거지로 왜구와 싸웠지만 성은 함락되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백성들은 모두 죽었다. 논개는 진하게 화장하고 의복을 곱게 차려입은 채 축석루 아래 가파른 바위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 아래는 만 길 낭떠러지로 곧바로 물결 한가운데로 떨어질 듯하였다. 못 왜구들이 〈논개를〉 보고 좋아하였지만 모두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였는데, 한 장수가 홀로 곧바로 나아갔다. 논개가 웃으면서 맞이하여 왜장을 유인하더니 논개가 마침내 왜장을 끌어안고 물에 몸을 던져 함께 죽었다. 임진왜란 때 관기로서 왜구를 만나 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죽은 사람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 논개 한 사람에 그치지 않는데 대부분 그 이름을 잃어 버렸다. 저 관기는 음란한 창녀니 정열(貞烈)로 기려질 수가 없는데도 죽음을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듯 여기고 왜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 저들 또한 성군의 교화를 입은 한 존재로 나라를 배반하고 왜적을 따를 수 없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충성이었을 뿐이니, 아! 슬픈 일이다.

48. 절개를 지키다 죽은 고려의 신하

선죽교(善竹橋)는 1392년 정몽주(鄭夢周)가 후에 태종이 된 이방원(李芳遠)의 일파에게 피살된 장소이기도 하다. 원래 선지교(善地橋)였는데, 정몽주가 피살되던 날 밤 다리 옆에서 대나무가 솟아나왔다 하여 선죽교(善竹橋)로 불리었다고 전한다.

277) 論介 : ?~1593. 진주목(晉州牧)의 관기(官妓)로 1593년 임진왜란 중 진주성이 일본군에게 함락될 때 왜장을 유인하여 순국한 의기(義妓)이다.

278) 金千鎰 : 1537~1593. 조선 중기의 문신·의병장. 임진왜란 때 나주에 있다가 고경명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성이 함락되자 남강(南江)에 투신자살하였다.

279) 挺然 : 여러 사람들 가운데 두드러짐.

89 太宗嘗告於上曰 鄭夢周²⁸⁰⁾가 豈負我家리오 上曰 我遭橫讒²⁸¹⁾면 夢周는 必以死明我로되 若係于國家면 有不可知라 及公之謀益彰著어늘 太宗設宴請之라 作歌侑之曰 如此亦何如오 如彼亦何如오 萬壽山原頭葛藤이 綴亦何如오 我輩若此하야 爲不死이 亦何如오하니 公遂作歌送酒曰 此身死了死了하야 一百番更死了하고 白骨爲塵土되어 魂魄有也無고 向主一片丹心을 寧有改理也歟아하니 太宗知其不變하고 遂議除之라 公一日에 問病於上하야 因察氣色하고 歸過故酒徒家한데 主人出外하고 堦花盛開라 遂徑入呼酒하고 舞於花間曰 今日風色甚惡(악)甚惡이라하고 連嚼數(수)大椀而出이라 其家人怪之터니 俄聞鄭侍中遇害矣라 公之自上潛邸歸也에 有囊韃²⁸²⁾武夫가 衝其前導而過하니 公顧謂隨行錄事曰 汝可落後라 答曰 小的從大相하리니 何可他往乎리오 再三呵止하고 亦不從라 行至善竹橋²⁸³⁾遇害하야 抱持同死라 《燃藜室記述》 〈太祖〉

90 嘗 일찍이 상 夢 꿈몽 周 두루 주 遭 만날 조 橫 가로 횡 讒 참소할 참 謀 꾀할 모 彰 밝을 창 著 드러날 저 宴 잔치 연 壽 목숨 수 葛 곶갈 藤 등나무 등 綴 엮힐 철 輩 무리 배 了 마칠 료 塵 먼지 진 魂 닛 혼 魄 닛 백 寧 차라리 령 變 변할 변 議 의논할 의 除 제거할 제 察 살필 찰 嚼 씹을 작 椀 주발 완 潛 몰래 잠 邸 집 저 橐 전대 탁 韃 매질할 달 衝 향할 충 呵 꾸짖을 가 橋 다리 교

태종(太宗)이 일찍이 태조(太祖)에게 아뢰기를, “정몽주(鄭夢周)가 어찌 우리 집안을 배반하겠습니까?”라고 하자, 태조가 말하기를, “우리가 혹시 근거 없는 모함을 당한다면 몽주는 반드시 죽음으로 증명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라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공의 음모가 더욱 드러나자, 태종은 잔치를 베풀어 공을 초청하였다. 노래를 지어 술을 권하기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萬壽山) 드렁칫이 얹어진들 또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죽지 않는 것이 또한 어떠리.”라고 읊자, 공도 마침내 노래를 지어 술잔을 보내면서 읊기를,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 되어 닛이라도 있고 없고, 임 향한 일편단심을 어찌 바꿀 리 있으랴.”라고 하였다. 태종이 그가 뜻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마침내 제거하기로 의논하였다.

공이 하루는 태조의 집에 병문안을 가서 〈그의〉 기색을 살피고 돌아오는 길에, 옛날의 술친구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주인은 외출하고 뜰에는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공이〉 마침내 들어가 술을 청하여 마시고 꽃 사이에서 춤을 추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날씨가 몹시 사납구나.”라고 하고, 큰 대접으로 몇 사발의 술을 마시고 나왔다. 그 집 사람이 이상히 여겼더니, 얼마 후 정 시중(侍中)이 해를 입었다는 말이 들렸다. 공이 태종의 집에서 돌아올 적에 활 통을 멘 무무사가 그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니, 공이 수행하는 녹사(錄事)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는 뒤에 떨어져 있거라!”라고 했지만, 대답하기를, “소인은 대감을 따를 것이니, 어찌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여러 번 꾸짖으며 말려도 듣지 않았다. 공이 선죽교(善竹橋)에서 살해를 당하여 서로 끌어안고 함께 죽었다.

49. 임궽정의 등장

280) 鄭夢周 : 1337~1392. 고려 말기 문신·학자. 고려 삼은(三隱)의 한 사람으로, 중종 때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저서로 《포은집(圃隱集)》이 있다.

281) 橫讒 : 뜻밖의 참소.

282) 囊韃 : 화살을 넣어두는 활통.

283) 善竹橋 : 황해북도 개성시에 있는 고려시대 돌다리.

여러 해 연이은 흉년과 관리들의 수탈로 민생이 어려워지자 임꺽정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은 세력을 키워 황해도로 진출하여 구월산(九月山) 등지를 근거지로 삼아 주변 고을을 노략질하였다. 이후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서 관아를 습격하고 창고를 털어 백성들에게 나눠 주는 등 의적의 행각을 벌이자, 이 일대의 아전과 백성들이 결탁해 내통하였다. 그리하여 관에서 잡으려 하면 미리 정보를 알고 달아나기도 한다.

91 巨正은 楊州白丁也라 性狡黠且驍勇하고 與其徒數十으로 皆極趨捷한데 起而爲賊하야 焚燒民居하고 亂搶牛馬한데 若抗之者면 則刷裂屠剪하니 極其殘酷이라 自畿甸로 至海西히 一路吏民이 與之密結²⁸⁴하야 官欲措²⁸⁵捕면 輒先漏通하니 以此橫行無忌하야 官不能禁이라 朝廷이 使宣傳官으로 哨探²⁸⁵한데 賊倒着²⁸⁶麻鞋²⁸⁷하야 使見者로 入則謂之出하고 出則謂之入하야 以亂其蹤迹이라 宣傳官²⁸⁸이 往九月山²⁸⁹하야 見其跡하야 以爲賊已出而徑還한데 賊在後射殺之라 朝廷이 又使釜津、長淵、豐川等四五官武臣守令으로 領兵往捕하야 聚于瑞興한데 吏民已通之하야 賊夜率(솔)六十餘騎하고 乘高俯瞰하며 亂矢如雨하니 五官軍이 不能支潰而歸하다 《燃藜室記述》〈明宗〉

92 狡 교활할 교 黠 교활할 힐 요 驍 날랜 효 趨 재빠를 교 捷 빠를 접 焚 태을 분 燒 불사를 소 亂 함부로 란 搶 빼앗을 창 抗 막을 항 刷 빠바를 과 裂 찢을 려 屠 잡을 도 剪 자를 전 殘 해칠 잔 酷 혹독할 혹 畿 경기 기 措 잡을 책 捕 사로잡을 포 漏 셀 누 通 통할 통 橫 가로 횡 忌 꺼릴 기 禁 금할 금 哨 망블 초 探 찾을 탐 倒 거꾸로 도 麻 삼 마 鞋 신혜 蹤 발자취 종迹 자취적 徑 지름길 경 還 돌아올 환 射 쏘사 殺 줄일 살 瓮 독웅 津 나루진 淵 못연 聚 모일취 乘 오를 승 瞰 볼 감 潰 무너질 깨

걱정은 양주(楊州)의 백정이었다. <타고난> 성격이 교활하고 또 날래고 용감하였다. 그 무리 수십 명과 함께 다 민첩하였는데, 일어나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함부로 빼앗았다. 만약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을 베고 사지를 찢어 죽여 몹시 잔혹하였다. 경기(京畿)에서 황해(黃海)까지 일대의 아전과 백성들이 그들과 은밀히 결탁하여 관에서 잡으려 하면, 번번이 먼저 누설하고 알려주니 이 때문에 제멋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관에서도 막을 수가 없었다. 조정에서 선전관(宣傳官)을 보내 염탐하도록 하였는데, 적들이 미투리를 거꾸로 신고 다녀서 <이를> 보는 자로 하여금 들어가면 나갔다 여기고, 나가면 들어갔다고 여기게 만들어 종적을 어지럽게 하였다. 선전관이 구월산(九月山)에 가서 그 자취를 발견하고 적이 이미 나간 줄 알고 바로 돌아오는데, 적이 뒤에 있다가 쏘아 죽였다. 조정에서 또 웅진(瓮津)·장연(長淵)·풍천(豐川) 등 4~5 관아의 무관과 수령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여 서흥(瑞興)에 모였었는데, 아전과 백성들이 벌써 내통하여 밤에 60여 명이 말을 타고 높은 데 올라가 내려다보며 활을 비 오듯 쏘아대니, 다섯 군사가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되어 돌아왔다.

50. 이순신의 활약

284) 密結 : 몰래 결탁하다.

285) 哨探 : 적의 상황을 탐색하다.

286) 倒着 : 신발 따위를 거꾸로 신다.

287) 麻鞋 : 삼베로 짠 신발인 미투리

288) 宣傳官 :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한 무관으로 왕의 시위(侍衛)·전령(傳令)·부신(符信)의 출납과 사졸의 진퇴를 등을 맡아보던 직책이다.

289) 九月山 : 황해도 신천군과 은율군 사이에 있는 산이다.

이때의 싸움이 바로 사천해전(泗川海戰)으로, 거북선이 처음으로 실전에 참가한 전투였다. 당시 사천선창에는 왜선 12척이 줄 지어서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순신은 때마침 조수가 나가 선의 활동이 좋지 못함을 판단하고 달아나는 척하는 유인전략으로 왜선 10척을 쳐부수었고, 이순신도 왼편 어깨에 철환을 맞았다.

93 一說에 初舜臣²⁹⁰⁾이 聞倭連陷釜萊하고 會諸將計事한데 鹿島萬戶鄭運²⁹¹⁾、軍官宋希立²⁹²⁾이 願以死自效하니 辭語慷慨라 舜臣이 大悅하야 以五月初四日에 領水軍下海하니 有戰船八十餘艘라 與元均²⁹³⁾約會하고 至玉浦前洋하니 有敵船三十餘艘가 四面圍帳하고 豎紅白旗하야 碇住洋中하고 分兵登岸하야 燒間舍煙焰遍山이라 賊見我師猝至하고 一時登船이라 舜臣이 督諸軍하야 焚賊船二十六艘하고 約以明日決戰이라가 聞京城失守하고 各還本鎮이라 捷上行在하야 百官引領相賀하고 遂進秩嘉善²⁹⁴⁾이라 臣이 無何夢見白頭老翁蹴起曰 賊來矣라하다 舜臣이 蹶然²⁹⁵⁾驚起하야 促戰艦會均于露梁하니 則賊果來矣라 一交戰에 焚破一船하고 追至泗川洋이라 遙見海上一山에 有賊百餘長蛇²⁹⁶⁾하고 而陣下有敵船十一艘라 時早潮已退水淺하야 不得進이라 舜臣鳴螺²⁹⁷⁾하며 佯退以誘之하니 賊果乘船逐之라 舜臣이 令龜船突進하야 焚其船十二이라 方戰에 賊丸中舜臣左肩하야 貫徹至背나 猶執弓注矢하며 督戰不已라 及戰罷하야 令人用刀尖로 挑出²⁹⁸⁾하니 一軍始知하야 莫不愕然이라 《燃藜室記述》 〈宣祖〉

94 陷 빠질 함 釜 가마솔 부 萊 명아주 래 鹿 사슴록 效 바칠 효 慷 강개할 강 慨 분개할 분 領 거느릴 령 戰 싸울 전 船 배선 艘 배소 浦 포구포 敵 적적 圍 에워쌀 위 帳 장막 장건 堅 세울 수 碇 닻 정 岸 언덕 안 燒 불사를소 間 이문러 煙 연기 연 焰 불꽃 염 猝 갑자기 줄 督 감독할 독 焚 불사를 분 鎮 진압할 진 捷 빠를첩 秩 차례 질 嘉 아름다울가 夢 꿈몽 翁 늙은이옹 蹴 찰촉 蹶 넘어질 꺾 促 재촉할촉 艦 배함 露 이슬로 梁 들보랑 破 쪼갤파 泗 물이름사 蛇 뱀사 淺 얇을천 螺 소라라 佯 거짓양 誘 껀유 龜 거북귀 突 갑자기돌 肩 어깨건 執 잡을집 弓 활궁 罷 파할파 尖 뾰족할첨 挑 찰도 愕 놀랄악

일설에 처음 이순신(李舜臣)이, 왜적이 부산과 동래를 연달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장수를 모아 일을 계획하는데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과 군관(軍官) 송희립(宋希立)이 죽음으로 목숨 바치기를 원하니 어조가 비분강개하였다. 이순신이 크게 기뻐하고 5월 4일에 수군을 거느리고 바다로 내려가니 전선(戰船)이 80여 척이었다. 원균(元均)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옥포(玉浦) 거제(巨濟) 앞바다에 이르자 적선 30여 척이 있는데 사면에 장막을 치고 붉은 깃발과 흰 깃발을 꽂고 바다 가운데 닻을 내린 채 군사를 나누어 해안으로 올라와 민가에 불

290) 舜臣 :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을 통솔했던 제독이며 시호는 충무공(忠武公)이다.

291) 鄭運 : 1543~1592. 조선 중기의 무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의 선봉장이 되어 옥포해전·당포해전·한산도대첩 등의 여러 해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292) 宋希立 : ?~?. 조선 중기의 무신. 임진왜란 때 의병을 모아 통제사 이순신 휘하에서 종군하고 정유재란 때 노량해전에서 왜군에게 포위된 명 나라 도독(都督) 진린(陳璘)을 구하였다.

293) 元均 : 1540~1597. 조선시대의 무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옥포해전·합포해전 등에서 이순신과 함께 일본 수군을 무찔렀고 이순신이 파직 당하자 수군통제사가 되어 칠천량해전에서 일본군의 교란작전에 말려 전사하였다.

294) 嘉善 : 종2품 아래의 관직인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준말이다.

295) 蹶然 : 벌떡 일어나다. 갑자기 일어나다.

296) 長蛇 : 병법의 하나로, 한 줄로 길게 벌인 군진(軍陣)의 하나.

297) 鳴螺 : 소라껍질로 만든 군대의 악기인 나각(螺角)을 불다.

298) 挑出 : 꺼집어내다.

을 질러 연기와 불길이 산을 뒤덮었다. 적이 우리 군사가 갑자기 이르는 것을 보고 동시에 배에 올랐다. 이순신이 여러 군사를 독려해서 적선 26척을 불태우고 내일로 결전하기로 약속했다가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말을 듣고 각자 본진으로 돌아갔다. 이 첩보가 행재소(行在所)로 올라가자 백관들은 목을 빼고 서로 하례하고 드디어 순신을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시켰다. 순신이 얼마 후 꿈에 백발노인이 발로 차서 일으키며 적이 〈쳐들어〉 왔다고 하였다. 순신이 놀라 벌떡 일어나 전함을 독촉해서 원균과 노량진에서 만나니 적이 과연 나타났다. 처음 1차 교전에 적선 한 척을 불태워 부수고 사천(泗川) 바다까지 추격해 갔다. 멀리 바라보니 바닷가 산 위에 적 백여 명이 장사진을 이리고 그 아래에는 적선 11척이 진을 치고 있었다. 때가 일러 조수는 물러가버리고 물이 얕아 나아갈 수 없었다. 순신이 나각(螺角)을 불어 거짓 후퇴하는 척하며 유인하니 적이 과연 배를 몰고 쫓아왔다. 순신이 거북선으로 돌진해서 그 배 12척을 불태웠다. 한창 싸우는 중에 적의 탄환이 순신의 왼쪽 어깨죽지에 맞아 등까지 꿰뚫었으나 오히려 활을 잡고 살을 쏘며 싸움을 독려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싸움이 끝난 뒤에 사람을 시켜 칼끝으로 어깨의 탄환을 빼게 하니 온 군중(軍中)이 비로소 알고 경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